

[ 최종길 교수 관련 홈페이지 ]

•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http://www.humankorea.or.kr>

-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각종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최종길 교수를 기억하십니까? 2. 최종길 교수(약력, 고문치사사건전말, 故 최종길교수 25주기 추모식, 관련사이트) 3. 최종길 교수 관련자료 모음(NEWSMAKER 1993. 5, 신동아 1988. 11, 주간조선, 신문사설 모음, 신문기사 모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련자료)

• 「미주한인 인권연합」

<http://www.humanrightsofkorean.org/question.htm>

- '미주한인 인권연합'의 홈페이지로 최종길 교수를 비롯한 민주열사의 의문사, 기타 인권 문제, 헌시(민족 민주 열사 영전에 바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사건 관련자료집

#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료집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은  
지붕 위에서 외쳐라”(마태복음 10, 26~27)

1999. 4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4 광장빌딩 5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화 : (02)3672-0251 ~ 2 팩스 : (02)3672-0255  
홈페이지 : <http://www.humankorea.or.kr>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

CPb1.103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



## 〈글 실는 순서〉

◇ 「故 崔鍾吉 教授 拷問致死 事件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	1
◇ 故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관한 의문점 .....	2
I. 최종길교수를 기억하십니까? .....	7
II.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	10
(최종길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동)	
III.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1974년부터 현재까지)	
1. 平和民主黨 성명서(1988. 10. 7.) .....	12
2. 성명서·현 시국에 즈음한 ‘우리의 인권 주장’ .....	13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정의평화위원회 공동, 1974. 12. 10. 추모미사)	
3. 추도사·최종길교수와 떠난 모든 형제를 위해 .....	15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74. 12. 18. 추모미사)	
4. 최종길교수 사인진상의 규명을 요구한다. ....	18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88. 10. 6. 검찰에 고발)	
5.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	22
(1988년 10월 18일, 검찰의 중간발표에 즈음하여 발표한 사제단의 중간보고서)	
6. 최종길교수 연미사를 위한 강론 .....	24
(1998년 10월 18일 오후 6시 명동성당 집전)	
7. 누가 한뼘의 손으로 저 밝은 태양을 가리려 하는가? .....	27
(1988년 10월 17일, 서울지역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8. 故 최종길 교수 변사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메씨지 .....	29
(1993년 10월 18일, 故 최종길교수 제20주기 추모식)	
IV.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故 최종길박사 제25주기 추모식 .....	30
V. 최교수의 동생 최종선씨의 수기 .....	47
(서울法大 崔鍾吉교수 중앙정보부가 죽였다, 신동아 1988. 11.)	
VI. 최종길교수 관련 기사	
1. 최근기사 .....	68
(1) “의문사 최종길교수 자살할 이유 없었다” - 73년 美CIA 한국책임자 그레그 증언	



“모진 고문 당한 것은 분명”(뉴스 플러스 1998. 11. 19.)	68
(2) “최종길교수는 고문으로 사망”(뉴스 플러스 1998. 11. 19.)	70
(3) “유신사죄 외친 참지식인”(대한매일 1988. 8. 20.)	73
(4) “역사의 진실에 공소시효는 없다”(대한매일 1988. 8. 20.)	75
<b>2. 신문 사실</b>	76
(1) 고문과 암살에는 공소시효 없애라(한겨레신문 1988. 10. 21.)	76
(2) 의문으로 끝난 최교수사건(한국일보 1988. 10. 20.)	77
(3) 최교수는 왜 죽었나?(동아일보 1988. 10. 20.)	79
<b>3. 사건의 전말</b>	81
(1)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고문치사였다”(NEWSMAKER 1993. 5.)	81
(2)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 의문의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주간조선 1988. 10.)	88
(3) 15주기 맞는 고 최종길 서울법대 교수 유신독재의 타살재조명 (경향신문 1988. 10. 19.)	92
<b>4. 주요 신문기사</b>	
<b>(1) 평 화 신 문</b>	
① 서울대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 정의구현사제단 “사인은폐 위해 간첩누명” (평화신문 1988. 10. 9.~15.)	102
② 최교수 사인규명 관심고조 - 진실 15년 은폐는 검찰의 직무태만 (평화신문 1988. 10. 16.~22.)	103
③ 최교수 사인 증거 못 찾아 (평화신문 1988. 10. 16.~22.)	104
<b>(2) 한 겨 레 신 문</b>	
① “73년 중앙정보부 연행조사중 투신자살 - 최종길교수 고문으로 죽었다” (한겨레신문 1988. 10. 7.)	105
② 최종길교수 타살여부 못밝혀 (한겨레신문 1988. 10. 20.)	105
③ 최교수·박신부사건 진상밝혀 처벌해야 (한겨레신문 1988. 10. 21.)	106
<b>(3) 동 아 일 보</b>	
① 최교수 동생. 前 중정과장 대질-서울대 교수 사인수사, 검찰 이후락씨 소환검토 (동아일보 1988. 10. 16.)	108
② 최교수 투신현장서 핏자국 등 발견 못해 (동아일보 1988. 10. 18.)	109
③ 검찰 “최교수 타살여부 못가려”- 시효관계없이 수사	

(동아일보 1988. 10. 18.)	109
④ 최종길교수죽음 「풀리지 않는 의혹」-결론없는 검찰수사결과 1차 발표 (동아일보 1988. 10. 19.)	110
⑤ HR 또 하나의 의혹 [교수의문사] (동아일보 1988. 12. 28.)	112
<b>(4) 한 국 일 보</b>	
① 검찰, 최교수 사인 조사착수 (한국일보 1988. 10. 8.)	115
② “혼자 검찰입회하면 거액준다”회유 (한국일보 1988. 10. 8.)	116
③ 직접증거소멸... 진상 못 밝혀 - 다시 미궁으로 빠진 최교수 사인규명 (한국일보 1988. 10. 19.)	118
④ 최교수 死因 영원히 미궁으로 - 살인죄도 어제 공소시효 만료 (한국일보 1988. 10. 19.)	120
⑤ 사인규명 끝난 시작 (한국일보 1988. 10. 20.)	121
<b>(5) 일 요 신 문</b>	
① “최종길교수 죽음 진상을 밝혀라”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성명 통해 (일요신문 1988. 10. 16.)	122
② 동생 최종선씨가 말하는 형의 죽음 (일요신문 1988. 10. 16.)	124

## Ⅶ. 의문사문제 해결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

법 안 1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126
법 안 2 민족민주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에 관한 법률	131



「故 崔鍾吉 教授 拷問致死 事件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1973년 10월 최종길 교수님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치사 당하신지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최교수님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이 땅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고, 또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과 죽음에 관한 진실은 아직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단지 '의문사'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1974년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정부에 대한 고 최종길 교수의 사인규명 요구는 무시되어 왔으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1988년 10월에는 유가족 및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검찰에 고발하여 그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으나, 끝내 '자살의 증거도 타살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결과발표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1973년 당시 '최종길 교수는 간첩이었다'는 공식발표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한 허위였으며, 최종길 교수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된 이상, 공소시효라는 범형식적 요건만을 내세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과거 우리 역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이 땅에 정의가 굳건히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인권유린이 저질러질 수 없도록 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누구의 처벌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 우리의 후세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그 암울한 역사의 산증인이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責務인 것입니다.

그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발족한 저희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오니,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9년 4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김승훈, 백충현



故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 관한 의문점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허위 날조된 것이다.

고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사망한 지 6일 후인 1973년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최종길교수는 간첩이었으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7층 화장실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최종길교수고문치사진상규명및명예회복추진위원회」는 새로운 입증자료와 정황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기하는 바이다.

1. 최교수가 '동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잠입하여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발표는 허위날조된 것이다

최교수를 조사했던 주무수사관 차철권은 "최교수가 '내가 간첩이었다'라고 자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독에 갔다 왔다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답을 얼버무리고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교수는 간첩이었으며, 실제로 간첩활동도 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는 활동했다고 우리가 봐야죠"라고 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추측으로 답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중앙정보부의 공식발표내용에 등장하는 「평양에서 20일간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나, 「간첩활동을 위한 국내조직」 등에 대해서는 최교수의 사망 직전까지도 직접 조사를 하고 있었던 주무수사관 차철권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차철권은 스스로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이 허구였으며 조작된 것이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최교수가 북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은 당시 미국 CIA 한국지부장으로 있었던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도 증언하고 있다. 1988년 검찰은 "간첩의 증거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최교수는 간첩이 아니었기에 간첩의 증거가 있을 리 없다. 이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검찰은 별다른 조사 조차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2. 간첩이 아니었다면, 자살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1973년 중앙정보부의 주장은, "최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자살했다는 것"인데, 간첩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위의 중앙정

보부의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3. 최교수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 증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된 사진

최교수의 사인을 거짓으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5국 수사단장 장송록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범행을 완전 부인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었지만, 어제 (18일) 부터는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을 하기에, 아늑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를 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기에 ..... 투신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 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장송록은 지하실에서의 물고문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최교수를 고문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주무수사관 차철권은 "그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한 적이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의 사실들에 의해 거짓이었음이 입증되었다.

1) 당시 지하조사실에서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김장현씨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하조사실내의 화장실을 다녀 오는 최교수를 목격하였으며,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최교수도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 1988년 11월 서울방송 기자들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된 최교수의 사체부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고문에 의해 찢겨진 다리와 둔부의 상처는 고문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1988년 당시 "고문의 증거도 없다"고 한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정정되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사진 한 장으로도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고문의 사실을 검찰은 왜 덮어두고, "고문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4. 7층에는 조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최교수는 어떻게 7층의 화장실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주무수사관 차철권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최교수의 사망 당일 늦은 시각에 야참까지 가져다 먹으며, 과거의 얘기를 하는 등 최교수와 담소를 나누었다. 여기서 최교수는 복에 다녀 왔다는 말을 했다. 구체적인 심문에 들어가려는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여, 보조수사관인 김상원을 시켜 최교수가 용변을 보고 올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최교수와 김상원이 방을 나간 뒤 차철권 자신은 바로 옆방인 과장실에 가 있었는데, 화장실 창문을 통해 최교수가 뛰어 내렸다.”

이미 1988년 부터 제기되어 왔던 의문점이지만 정보부원들의 감시를 피해 중앙정보부 건물내의 화장실에서 창문을 통해 투신 자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 상세한 것은 이 자료집중 1988년 당시 관련 기사 참조)

차철권은 7층 자신의 사무실에 피의자인 최교수를 데리고 가서 야참까지 먹었다고 하는데, 7층은 중앙정보부 중앙건물의 맨 윗층이며, 그 바로 아래층에는 정보부장실이 있어서, 친위대가 엘리베이터의 통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던 곳이다. 더구나 차철권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의 사무실은 과장실의 바로 옆방에 있었는데, 이런 장소에서 피의자와 야식을 먹어가며 심문을 한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중앙정보부의 내부규정에도 심히 위배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차철권은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중앙정보부의 기밀누설금지규정을 준수해야 하니, “대통령에게 탄원을 하든지 하여, 자기가 말을 해도 좋다는 허가부터 받아오라”는 말로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중앙정보부의 내부규정에 반하여, 고문에 의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된 초췌한 몸골의 피의자를 정보부장실이 있는 6층을 거쳐 7층의 과장실 옆방으로까지 끌고가 심문을 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자기모순이다. 또한 차철권의 주장에 의하면 최교수의 사망시각에 당직을 하고 있던 여러 명의 근무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눈을 피해 7층에서 심문을 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감찰과장으로 근무했던 이병정씨의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될 수 있었다:

“그 날 아침 사고가 있어서 우리에게 신고가 들어 왔어요. 5층 화장실에서 투신자 살기도를 했다는, ..... 내가 그 보고를 새벽 4시쯤 당직을 통해 접하고, 당직차를 타고 내가 갔죠. 아마 새벽 6시쯤 됐을 거야.”

- 당시 그런 일이 있으면 5층에서 수사를 했었나요?

“그렇죠. 수사실이 5층에 있었어요.”

- 수사실이 5층에 있었어요?

“예, 5층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5층은 실제로는 4층이다. 이 건물에는 4층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3층의 바로 윗층을 5층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정씨는 5층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는 왜 최교수가 7층에서 투신하였다고 발표했을까? 그리고 주무수사관 차철권 역시 왜 그 내용에 입을 맞추고 있는가? 그 이유는 자명하다. 7층은 실제로는 6층이다. 7층은 이 건물의 맨 윗층이며, 매우 높은 층이라는 인상을 줌으로 해서, 여기서 뛰어 내리면 아무도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중앙정보부에서 실시한 최교수의 사체부검결과는 7층에서 뛰어내리며 부러진 갈비뼈에 의해 심장이 파열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즉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교수는 살아 있었다.

### 5. 최교수는 살아있었다. 그렇다면 7층에서 투신하여 심장이 파열되었는데도 살아 있었다?

주무수사관 차철권은 최교수가 투신후 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도 당시 감찰과장 이병정씨는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

“내가 가니까 (새벽 6시경), 급히 병원에 실려가고 난 뒤에요. 그 때 절명은 안했고, 내가 애길 들으니까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그래요. ... 급하니까, 환자가 생겼으니까,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고 그래요.”

하지만, 중앙정보부측이 주장하는 최교수의 사인은 「부러진 갈비뼈에 의한 심장 파열」로 되어 있는데, 심장파열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육안으로 확인해서도 아직 생명이 붙어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의 근거요소, 즉 신음이나 움직임등이 존재했었다는 모순된 논리가 성립한다.

차철권의 주장대로라면, 7층에서 투신하였다는 시각은 1973년 10월 18일 오후 11시경이다. 또한 그의 말대로 최교수가 그 즉시 사망했다면, 왜 감찰과장인 이병정씨



를 다음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호출했겠는가? 이 5시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중앙정보부내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상과 같이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내용이 조작에 의한 허구였으며, 최교수에 대한 고문의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 줄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4월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실행위원장 이광택(국민대 법대 교수)

## I. 최종길교수를 기억하십니까?

(개혁통신 1999년 2월 11일)

前 대통령 고문사회 수석비서관 김 정 남

작년(1998년) 10월 17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구내에서는 최종길교수 제25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세웅신부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추모사를 해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종길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하여 그 안에서 죽음을 당한지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그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를 추모하기까지만도 25년이나 걸렸습니다. 사제인 저 자신부터, 우리가 그를 죽였으며, 권력이 두려워 그 진상조차 밝히지 못했노라고 고백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겁하고 무능했던 것에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 유명한 서울법대 교정입니다. 이 나라를 움직여왔고 또 움직이는 것이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최종길교수의 죽음을 놓고 서울법대 출신들이 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선배요 동료였던 최종길교수의 죽음의 진실조차 밝히지 못하고, 추모식 한번 가지지 못한 것을 저 자신은 물론, 서울법대인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 통회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저 자신부터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구구절절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민정부 시절 잠깐이지만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최종길교수 문제를 비롯, 험난했던 민주화의 도정에서 오늘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국민과 그리고 먼저 가신 분들의 유가족 앞에 엎드려 이 글을 씁니다.

최근 1973년 10월 19일,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故 최종길교수에 대한 추모분위기와 함께, 그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晚時之歎은 있지만, 마땅하고 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종길교수의 죽음은 그보다 조금 앞서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과 함께 유신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특히 그 이후 그렇게도 많이 나타났던 의문사의 효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신독재는 최종길교수의 죽음을 묻고 그 무덤을 넘어 74년 1월의 긴급조치 1, 4호로 시작되는 길고 험난했던 긴급조치시대를 거쳐, 마침내 79년 10월 26일 유신정권이 붕괴되기까지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최종길교수가 간첩혐의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화장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했다고 간첩의 누명까지 씌웠습니다. 독재권력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바로 그 용공조작이 최종길교수의 죽음을 놓고서도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진실과 함께 최종길교수의 명예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73년 10월 2일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시작된 반유신 투쟁은 법대를 비롯하여 전 대학가로 순식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이때 최종길교수는 스스로 학생들의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당황한 권력이 반유신 투쟁의 불길을 잡기 위하여 최종길교수를 연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종길교수가 어이없이 희생된 것입니다. 그동안 최종길교수에 대한 추모행사나 사인에 대한 진상조사 노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74년 12월 명동성당에서 추모미사를 올렸고 이 자리에서 사인에 대한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던 것이지요.

88년에는 당시의 중앙정보부장, 담당수사관들 및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만료를 기화로 '타살했다는 증거도 자살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서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누구나 처벌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진실만을 말해 줄 것을 애리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족들의 25년에 걸친 호소요 비원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최종길교수의 동생 최종선씨는 88년 내가 평화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최종길교수의 죽음에 대한 특집을 통하여 정보부 발표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증언하였으며 지금도 최교수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와 자료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최종길교수가 자진출두할 때, 형을 정보부로 안내한 장본인입니다. 최종길교수의 죽음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진한 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 모든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바로 그 날을 누구보다 절절하게 또한 목메이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시절에 있었던 모든 의문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어쩔 수 없이 최종길교수의 죽음부터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남치사건의 진상도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숨겨간 사람들에 대한 남아있는 우리들의 최소한의 도리요 책무인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한 맺힌 눈물을 닦아주기까지는 아직 민주화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인권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최종길교수의 가족들은 검찰이 조사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음도 덧붙입니다. 73년 사건 때에는 검찰이 개입했었고 88년 재조사 때에도 검찰이 진실보다는 자기 조직보호에 더 열심이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 II.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 故 崔鍾吉 教授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신독재의 어두움이 가장 깊었던 1973년 겨울 서울대 법과대학의 崔鍾吉 教授가 중앙정보부에 조사차 불러 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지 벌써 4반세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실에의 접근은 봉쇄되었고 그를 아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崔鍾吉 教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족들의 마음 속 깊이에 간직되어 있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분노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人權을 국정지표로 내세운 國民의 政府를 맞아, 崔鍾吉 教授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그의 의문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崔鍾吉 教授의 죽음은 간첩단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체의 부검도 가족의 참여도 없는 가운데 중앙정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崔鍾吉 教授를 잘 아는 이들은 그가 간첩단사건에 관여할 리도 없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자살을 결행하리라 꿈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이 개인을 자살하도록 내버려 둘 만큼 허술한 기관이 아닌 줄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중앙정보부에 의한 고문과 인권유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 했던 당시의 엄혹한 고문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권력기관의 살인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시의 수많은 고문에 대하여 관련기관 스스로 고문사실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박종철 군의 사망조차 다른 증인이 없었던들 자연사로 덮어버리려 한 그 정황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의문은 의혹의 단계를 넘어 확신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眞實입니다. 4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는 그 누구의 처벌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은 하나하나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실이 없이는 어떤 위로의 표현도, 용서의 기도도, 명예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7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선언하였듯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기관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그 사실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 진실을 기억할 義務를 갖고 있습니다. 崔鍾吉 教授를 아는 우리는 우선 그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구하지만, 그동안 비민주체제 하에서 벌어진 의문사의 사례에도 똑같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문사의 眞實도 아울러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의문이 단 한 건이라도 제기된다면, 모든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진실을 철저히 규명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맺힌 한을 풀어주지 않고서 진정한 의미의 나라사랑과 국민통합도 無望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의문사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관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인권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책임있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眞實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正義만이 우리 국가의 반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8년 10월 17日

崔鍾吉 教授를 追慕하는 사람들의 모임



### Ⅲ.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1974년부터 현재까지)

#### 1. 平和民主黨 성명서

우리 당은 최종길 교수의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告 訴에 접하여 유신정권이 독재정치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교수를 간첩 으로 조작·고문하다가 생명마저 유린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 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眞正한 死因을 國民앞에 밝히고 조속한 起訴로 關係者를 엄벌해 줄 것을 促求한다.

人類의 歷史에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 며, 舊時代의 罪惡들을 정부가 만일 계속 은폐하거나 방치하려 한다면 이 政 府도 결국 舊時代의 罪惡들과 同列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고문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차제에 반드시 규명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1988년 10월 7일  
평화민주당 부대변인 金 秀 一

### 2. 성명서·현 시국에 즈음한 '우리의 인권 주장'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한국정의평화위원회 공동, 1974. 12. 10. 추모미사)

우리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그 동안 우리가 발표했던 제1, 2차 시국선언과 사 회정의실천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12월 4일 우리가 제의한 인권문제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일주일의 지나도록 당국으로부터 답변이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는 우리 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읽으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로 되어 있다. 현실에서 인권의 회복을 외치는 것 은 안보와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비추어 이 땅의 인권현실을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하여 국민이 분배받는 것이 다. 인간의 자유권은 둘이며 큰 자유를 위하여 작은 자유는 유보되어야 한다.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을 외면하고 서구적 민주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철없 는 소리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富)와 권력에 따라 인권의 차별대우를 받는 다.”

“국민소득 1천달러, 수출 백억달러가 달성 될 때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유보되어야 한다. 하느님이 주신 통치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생명·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 지 못한다. 법률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며 만인은 법률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

“정치권력에 반대하는 사람은 법에 의하지 않고도 납치, 행방불명, 체포, 구금, 고문당할 수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자는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유죄로 인정된다. 또 이러한 반대 자는 행위 당시의 법률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사상·종교 및 양심의 자유와 평화적인 시위나 집회는 큰 자유에 대하여 제약 될 수 있 고 또 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 치자 1인에게서 나온다. 근로자는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없으며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인권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 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자 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정권안보에 위협을 줄뿐만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사대 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의 인권현실이 갖는 이 엄청난 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향유해야 할 기 본적 인권마저도 스스로 주장하기를 주저하게 된다. 국민 각자의 인권의 보장은 곧 민주회 복의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 는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격을 상실한 정부임을 우리는 믿는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인권을 탄압하고 제한하는 것은 스 스스로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인권문제에 대한 80만 카톨릭의 관심과 결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부정과 부패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부정과 부패는 권력과 국력의 강약에 따라 인권이 차별적으로 대우됨을 의미한다. 부정과 부패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암적 존재이며 동시에 동등한 인권의 발상을 가로막는 사회적 악조건이다. 부정과 부패의 일소가 곧 정부의 약화를 결과하는 것일지라도 국민은 부정, 부패의 일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되었다. 많은 사람의 증언과 해외 언론의 보도가 이를 밀발침하고 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최종길 교수 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 인권유린의 수부(首府) 중앙정보부 등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인권유린을 인정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철폐되어야 한다.

3. 민청학련 사건에서 나타난 인권유린의 사례는 당국이 12월 4일의 우리의 제의를 사실상 거부함으로써 확인되었다. 정부는 마땅히 구속인사 203명 전원을 조속히 석방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한 죄과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근로자의 인권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자기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봉쇄하는데 따른 모든 책임은 마땅히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불리한 노동조건과 실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새로이 고통받는 사람들, 민주회복과 구속인사 석방을 부르짖는 학생, 교수, 변호사,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임광규 변호사에 대한 조치 및 백낙청 교수에 대한 부당한 파면은 즉각 취소되어야 하며 김병길 교수의 사표는 반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성직자인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령은 하느님의 진리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우리는 이 점을 중시하는 바이다.

6. 국민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국민 다수의 정당한 주장을 총칼과 권력으로 폭압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점이 그릇된 정부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7.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우리의 주장과 제의에 대하여 대화와 토론으로 응답해 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3. 추도사 · 최종길교수와 떠난 모든 형제를 위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74. 12. 18. 추모미사)

작년 10월, 최종길 교수 당신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년 10월 16일 당신께서 봉직하시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수업이 끝난 후 당신은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 돌아오시지 못하였습니다. 4일 후 정부는 당신께서 간첩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죄를 자백한 후 7층에 있는 심문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당신 제자들인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자 당신은 교수회의 석상에서 중앙정보부에 항의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교수도 학생들과 더불어 폭정과 독재에 항거하자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을 중앙정보부가 연행해간 원인이 학생들 편을 들었다는 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1970년부터 2년간 미국의 하버드대학의 법과대학에서 봉직하셨고 하버드 연찬재단에서 수상하셨으며 하버드대학에서 영국, 미국 및 독일의 국제사법을 연구하기 위해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당신께서는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1972년 가을, 정확하게 말하면 10월 17일, 당신께서 서울로 돌아오신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갑자기 한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했습니다. 최종길 교수, 당신께서는 양심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처사에 무척이나 분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셨고 오직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인 학생들에게 따뜻한 눈길만을 보내셨을 뿐입니다.

73년 10월 불의와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분노가 학원에서 폭발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당신의 제자들인 학생들을 연행, 구속하였습니다. 어찌 그뿐이었습니까?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구타를, 몸서리치는 폭행을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수들도 데려다가 똑같이 폭행을 자행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당신께서는 교수회의에서 정보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이 일이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될 줄은 당신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 자체가 처음에는 비밀에 붙여졌음은 물론입니다. 당신이 연행되어 가신지 나흘만에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발표를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국은 시체를 검시하여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자백 내용도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종길 교수! 중앙정보부란 곳이 그 안에서 자살할 여유를 줄만큼 허술한 곳이 아님을, 그렇게 자유스러운 곳이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살은 날조된 것입니다. 지금 미망인이 된 당신의 부인께서도 의사이면서도 자신이 당신의 시체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시체는 봉인된 채 다시는 시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극비리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께서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캐기 위한 노력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한 당신의 동료들의 추적도 협박과 공포 분위기로 방해되었습니다. 신문은 침묵을 강요당했고 미국에 있는 당신의 동료들도 당신 죽음에 대한 토론을 중지당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의



촉각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고문, 치사당하셨다는 소문은 보도를 통한 것보다도 더 빨리, 더 넓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당신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신을 고문한 사람이 고문하는 기계의 조작법을 몰라 그렇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신의 혈육인 동생은 그 때 중앙정보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연행해간 사람도 당신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갖는 괴로움은 오죽했을 것이며 분노와 슬픔을 깨물면서 침묵을 강요당한 당신의 부인께서는 또 얼마나 애절하셨겠습니까?

국내외에서 공히 품질보증을 받고 있는 중앙정보부의 절묘한 고문수단에 희생된 사람이 어찌 최 교수 당신 한 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들 용기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을 두고도 중앙정보부가 두려워 쉬쉬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을 추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용기 없음을 안타까와 합니다. 오늘에야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당신의 추도미사를 올리게 됨을 부끄러워 합니다.

소리 없는 흐느낌보다 차라리 크게 통곡하고 싶음은 어인 일이옵니까? 당신을 이 세상에서 앗아간 것이 누구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두 자녀와 부인을 두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한 것이 진정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 석자는 언제나 우리의 결의와 각오를 새롭게 하는 타오르는 횃불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최종길 교수! 당신과 정도의 차는 있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선량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다 같은 피해자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 이 땅에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조치라는 명목으로 많은 애국인사와 성직자가 투옥되었고 학생과 변호사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달을 보고 달이라 할 수 없고 해를 보고 해라고 할 수 없는 암흑의 천지가 74년을 지배했습니다. 3천만은 소수이고 1인 독재는 다수이며 간악한 권력을 하느님이 주신 것이라 강요하는 궤변이 난무한 해였습니다. 정보부에 끌려가 사형과 무기징역, 5년에서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2백명을 넘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 재우기 고문. 부인하면 다시 고문, 이런 고문 저런 고문 등 품질보증 정보부의 온갖 고문이 다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학교문을 닫고 번뜩이면 체적, 퇴학이 홍수처럼 빗발쳤습니다. 언론탄압, 종교탄압이 다반사로 행해졌습니다. '별고 없느냐'는 인사말이 생겼을 정도로 연행사태가 빈번해졌습니다.

유신지지는 정치활동이 아니고 유신반대, 민주회복운동은 정치활동이며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종교활동이 아닌 정치활동으로 간주되어 파면과 추방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횡포에 비례하여 민주회복과 기본권을 주장하는 국민의 분노는 각계각층에서 줄을 이었습니다. 학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언론계에서 폭압에 반대하는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권력당국은 아직도 반성은 커녕 분위기 운운하면서 구속자의 석방을 늦추고 있고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날치기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는 언론에 대하여도 경영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다시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의혹은 마땅히 그 진상규명을 통해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당국이 그 진상을 밝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중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누가 만든 분위기입니까?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생각치 않는다면, 어떻게 주권자인 국민을 개헌하자고 했다 해서,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평화적인 시위 한 번에 사형까지 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긴급조치를 비방만 해도 사형에 처하겠다니! 그야말로 입 한 번 병긋하면 죽음이라니 이게

웬말입니까?

국민생활은 국제경기의 침체라는 구실 아래 도탄지경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사대주의를 운운하는 정부는 경제적 사대주의가 빛은 국민 생활의 도탄을 오히려 폭압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이 땅을 외국자본의 낙원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으며 국민경제의 해외의존을 이토록 조장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 기본적 생존이야 정보부인들 폭력과 고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아가는 까마귀만 보아도 놀라는 정보부가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를 획책하는 현 정권의 말을 끝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은 정부의 발표를 끝이 곧대로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한 한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기아입니다. 차라리 현 정권이 우리 국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을 미궁으로 몰아넣는 까닭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극심한 분노에 사무쳐 고이 눈감으시지도 못하는 당신께 우리의 슬픈 현실을 이렇게 사죄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릇된 권력의 희생자요, 이 세상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다 같이 복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례식까지 통제받아야 했고 슬픔까지 감춰야 했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당신을 추모하면서 이 땅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저 감옥의 죄없는 수인들을 위하여 그들이 받는 고통의 그 몇분의 일이라도 같이 하고자 오늘 이렇게 단식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비명에 가신 최 교수님! 당신의 열, 당신의 영혼이 오늘 분명 우리와 함께 이 기도회에 같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 용기의 그 절반이라도 가지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암흑 속에 진실의 횃불을 밝혀 높이 들고 자유민주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소서. 그릇된 권세를 몰아내고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세가 그 자리에 자리하게 하소서. 우리는 다 함께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해방된 사회가 실현되어야만 당신의 원혼도 비로소 고히 잠들어 눈감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같이 모여 통곡으로 당신을 추모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뜻을 굽어 살피사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주저하게 않게 하시며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최종길 교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 4. 최종길교수 사인진상의 규명을 요구한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1988. 10. 6 검찰에 고발)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마태 10,26~27)

1. 1973. 10. 25. 당시의 중앙정보부는,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범행을 자백한 후 여죄를 추궁당하자 그해 10. 19. 01:30.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창문에서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를 하였다. 최고수에게 씌워졌던 간첩혐의에 대하여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의 불행한 죽음의 원인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를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사제단은 의문투성이의 최 교수 죽음에 대하여 ‘모든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성서 말씀에 따라 그동안 이를 추적해 온 결과 최고수의 죽음은 그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흑심한 고문수사과정에서 빚어진 폭압적 권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 우리 사제단이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최고수가 연관이 되었다고 하는 이재원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은 최고수가 중앙정보부에 자진출두를 하였던 1973. 10. 16. 당시에는 수사가 거의 종결되어 있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송치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으며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부서는 중앙정보부 수사국 수사과이었음에도 최고수만을 새로이 처음부터 수사국 공작과에서 담당하였다. 같은 사건의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부서에서 다루는 것이 상식일터임에도 수사과에서의 수사가 종결단계에 있었던 때에 수사전문가가 아닌 공작전문가에게 최고수에 대한 조사가 맡겨졌다는 것은, 처음부터 간첩관련 여부의 사실조사보다 공작목적에서 최고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우리의 이런 의혹은, 당시 유신철폐를 외치는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제압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을 때 최고수가 서울대학교의 교수회의 석상에서 학생들의 처벌을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중앙정보부에 항의하자고 주장한 일이 있어, 중앙정보부가 최고수를 사갈시하여 오던 터에, 이재원과 중학교 동기동창이었던 최고수를 간첩단사건에 연루시킴으로써 유신철폐의 학생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학원탄압의 구실로 삼아보자는 공작이 최고수에 대한 조사착수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근거에 서이다.

3. 최고수의 사후에 중앙정보부측이 유족에게 말하기는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운운” 했다가 10. 25 발표에는 “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 . . 자살운운”으로 둔갑했는가 하면 공식발표문에서는 “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 “목적하는 공작에 썼다는 증인이 나타나자 투신운운”으로 소위 투신자살의 동기나 계기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타났다는 증인이나 자료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유족에게 보여준다고 해 놓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최고수에 대한 수사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최고수에 대한 당국의 발표가 허구이며 날조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최고수의 죽음은 투신자살일 수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보아도 분명하다.

먼저 최고수 사망직후 수사국의 수사단장 장송록은 유족들에게 최고수가 변소창문으로 투신하였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사관 2명중 한 수사관은 ‘교수님! 가족이 있는 분이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회유하고 다른 수사관은 뒤로 살금살금 가서 다리를 잡는 순간 투신한 것이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당시 최고수를 변소에 데리고 갔던 수사관 2명이 최고수의 투신을 막으려 했으나 막을 틈이 없었다는 것인데 최고수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변소의 창문은 가로 1m, 세로 1.5m 가량의 알루미늄 샷시로 되어 있고 유리창 문턱의 높이는 1.5m가량, 창문턱의 폭은 20cm 정도로 창문턱의 내부쪽은 45° 각도로 타이루가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 척 하다가 여기로 뛰어내리려면 ① 창문으로 다가가 시건을 풀고 ② 창문을 열고 ③ 창문턱 바깥쪽으로 손을 내밀어 창문턱을 잡고 의지한 다음 ④ 한 발을 변기의 앞부리 위에 올려놓고 다른 발을 마저 들어 두 발을 모으고 ⑤ 다시 한 단계 위인 약 1.5m 높이의 변기꼭대기 위로 같은 동작을 거쳐 완전히 올라선 다음 ⑥ 한 발을 들어 창문턱에 올려 놓고 나머지 발을 올려 두 발을 모으고 나서 ⑦ 창틀을 잡은 손을 떼면서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 ⑧ 창밖을 향하여 뛰어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동작 실수없이 신속하게 하더라도 어림잡아 10여초 이상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 그 사이에 최고수를 감시하던 수사관 2명이 길이 6m, 폭 3m의 좁은 공간에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로, 당시 최고수가 투신하였다고 하는 10. 19. 새벽 1:30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뒤 최고수의 실제이자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에 근무하던 최종선씨가 투신하였다는 7층 변소창문 밑을 극적으로 비밀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장에는 유혈도, 유혈을 씻어낸 흔적도 없었다.

셋째로, 사체부검에 즈음하여 유족측에서는 유족이 의뢰하는 변호인과 의료진의 입회를 요구하였으나 중앙정보부가 완강히 이를 거부하였다. 만에 하나 최고수의 죽음이 투신자살이었다면 유족의 요구를 거부하기는커녕 그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권고하였을 것이다.

넷째로, 최고수 사망직후 앞에 말한 수사단장 장송록은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고수가 정보부에 온 후 처음 이틀동안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아늑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 . . 투신하였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 왔더니 투신자살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최고수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잔학한 고문을 당하였음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죽었음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검에 있어서 유족의 요구를 거절한 다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고수 시신에 대한 검사를 일방적으로 끝내고 거기에 참여했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이창우, 연구소 법의학과장 김상현은 투신자살임이 부검결과 확실하다고 사인을 은폐 조작하였고 이어 중앙정보부측은 은폐조작한 사실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6. 우리가 추정하는 바 최종길교수를 고문치사케 하는데 책임이 있거나, 최종길교수의 사인을 은폐조작하고, 죽은 최종길교수에게 간첩의 누명을 씌워 명예를 훼손하는데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당시 직책은 다음과 같다.



- (1) 차철권 (중앙정보부 5국 사무관, 최종길교수 주무수사관)
- (2) 김상원 (주사, 보조수사관)
- (3) 변영철 등 당시 5국 10과 직원 전원 (고문에 교대로 관여)
- (4) 고 某 (담당조사계장)
- (5) 안홍용 (중령, 담당공작과장)
- (6) 장승록 (이사관, 수사단장)
- (7) 안경상 (수사국장)
- (8) 조일계 (차장보)
- (9) 김치열 (차장)
- (10) 이후락 (부장)
- (11) 이병정 (감찰실 감리과장)
- (12) 손중호 (감찰실장)
- (13) 배명갑 (감찰실 부실장)
- (14) 허만위 (감찰실 행정과장)
- (15) 이용섭 (감찰실 수집과장)
- (16) 서철신 (5국 9과장)
- (17) 정낙중 5국 수사계장 등 10여명 (감시 및 은폐)
- (18) 서재규 (감찰실 감찰과 계장, 고문수사관을 조사)
- (19) 김명옥 (감찰실 감찰과 직원)
- (20) 오수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 (21) 김상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 (22) 이창우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

7. 우리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오직 고문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거듭 확인하고, 어둠속에 갇힌 진실을 빛 속에 드러내며, 누명을 쓰고 죽은 최종길교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함일 뿐, 보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련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음을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건에 관련이 있거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에 입각한 증언을 기대하고자 한다.

검찰 또는 관계당국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함에 있어 필요하다면 우리는 관련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유가족을 비롯하여 관련인사의 증언을 적극 주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둔다.

아직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지만 공소시효 이전에 법적 절차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제단의 과오로서 유가족에게 죄송한 뜻을 전하면서, 공소시효의 차원을 뛰어넘어 공명정대하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믿는다. 국회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권 발동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와 호소를 전한다.

우리는 또한 최교수에게 사후에 간첩의 누명을 씌운데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부 또는 당해기관이 공식사과를 통해 최교수의 명예는 물론 오욕에 찬 권력기관의 명예도 회복할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최종길교수 사건이 진실로 명예롭게 규명·처리되기를 바라면서, 사건의

전개를 지켜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최종길교수도 이 사건의 명예로운 결말을 희망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과 함께,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상규명활동이 늦었음을 사죄하고자 한다.

1998년 10월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5. 진실은 끝까지 밝혀야 한다.

(1988년 10월 18일, 검찰의 중간발표에 즈음하여 발표한 사제단의 중간보고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0월 6일, 서울지방검찰청 김두희 검사장에게 '최종길 교수 사인진상의 규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고발장을 낸 뒤를 이어, 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승훈, 오태순 신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고영구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두, 참고인 진술을 한 바 있다. 이후 사제단에 양심선언과 함께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수기를 쓴 최종선(44, 최종길 교수의 친동생이며,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으로 근무중이었음)씨가 10일부터 검찰에 출두 진술, 또는 대질신문에 응하여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검찰이 최종길교수의 의문에 쌓인 죽음을 규명할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소의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음을 고백치 않을 수 없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내세우거나 투신자살이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식의 비공개 견해들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해 이미 어떤 예단과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인상을 풍겼으며, 어떤 담당검사는 밝혀야 될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인식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소극적 진상규명의 태도로서는 진실이 밝혀지기 보다는 또 한번의 은폐와 조작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믿으면서, 공소시효 문제와 관계없이 앞으로 대검찰청이 직접 조사에 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우리는 또한 이미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로 이름까지 바뀐 마당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기획부가 제2의 은폐와 조작에 가담하지 말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과 고문없는 사회의 실현일 뿐, 특정기관이 훼손되거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과 단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뜻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중앙정보부는 당초에 최종길교수가 간첩으로 구속, 조사받던중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의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이를 입증할 구속영장, 진술서, 자필진술서, 육성녹음 등 증거물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최종길 교수를 심문한 공작관들이 작성해 놓은 진술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사후에 조작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그 신빙성을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최종길 교수에 대한 간첩혐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들의 심증이다. 최종길 교수에 대한 간첩혐의 부문이 백지요, 무혐의라면 최종길교수는 투신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 되었음이 더욱 분명한 것이다.
2. 정보부측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길 교수의 투신자살 현장사진은 최교수가 반듯이 누워 있는 흑백사진으로서, 당시 중앙정보부가 유가족에게 설명한 내용(뒷머리가 깨지고 양쪽의 손과 발이 부러졌다고 했음)과 상이할 뿐 아니라, 천연색으로 상세하게 전후좌우, 또는 치명적인 손상부위를 접근 촬영해야 하는 것이 번사사체 처리의 상식임에 비추어, 현장을 있는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은폐, 조작을 위한 사진임이 명백하다고 본다. 검찰에 의하면 이 사진은 정보부 이문동 청사의 사진사가 찍었다고 하는데 통행금지

시간에 그것도 멀리 이문동 청사 사진사를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 및 그 의도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17일,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과장 이병정씨와 최종선씨와의 대질신문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병정 감찰과장은 정보부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통행금지 시간중에 중앙정보부에 도착, 투신현장을 살펴 보았으나 이미 사체도 없었고, 핏자국은 물론 물로 씻어낸 흔적도 없었다고 한다. 의아해서 옆에 있던 5국 수사관에게 사체가 어디 있는냐고 묻자, 앰블런스로 병원으로 옮겼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조직법과 직무규정에 의해 부원의 범죄를 조사하는 공식적인 책임자인 감찰과장의 현장조사 이전에 이미 사체를 치우고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 전에 이미 은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보부 발표 사망시각은 10월 19일 오전 1시 30분인 바, 통행금지해제시간인 4시 이전에 이병정 과장이 도착했음으로 현장을 정리하고 사체를 옮긴 시간이 2시간 30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를 옮기기 전 병원 등 제3의 장소로 먼저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사체운반에 앰블런스가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4. 정보부측이 제시한 사진과는 달리 최종길 교수가 투신자살을 위해 뛰어내린 중앙정보부 남산청사내의 변소의 위치와 구조는 이병정 감찰과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최종선씨의 수기내용과 완전히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5. 17일의 이병정 과장과의 대질신문에서 당시 이병정 감찰과장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당시 안경상 수사국장, 장송록 수사단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하고 관련조사관 5명은 중징계토록 건의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5명의 수사관이 최종길 교수에 대한 고문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변소에 따라간 것이 다섯 명의 수사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2명이 아니라 5명인 것이다.
6. 이병정 전 중앙정보부 감찰과장과의 대질신문에서 최종선씨의 수기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우리는 앞으로 최종선씨 등 모든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현장 검증 및 대질신문을 통해 끝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당국에 촉구하면서,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용기있고 양심에 찬 증언을 호소해 마지 않는다.

1988년 10월 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 6. 최종길교수 연미사를 위한 강론

(1998년 10월 18일 오후 6시 명동성당 집전)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메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메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마태10.26~27)

이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최종길교수사건의 진상규명을 검찰에 요구하면서 낸 고발장의 첫머리에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꼭 같은 성서구절을 작년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살인 은폐조작사실을 발표하면서도 인용하였습니다.

박종철군 사건과 최종길교수 사건은 흡사하다 못해 14년 전의 필름을 그대로 14년만에 복사해서 돌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을 고문살인한 것이나 사인을 은폐·조작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고문끝에 죽자, “양심의 가책에 못이겨 7층의 변소창문을 뛰어넘어 자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1월에 치안본부는 바른대로 말하라고 책상을 ‘탁’하고 치니까 박종철군이 ‘억’하고 쓰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을 의사가 보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치안본부도 자살로 조작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가족을 달달 볶아 빨리빨리 장례치르게 한 것이 또한 같습니다. 화장을 권유한 것이 또한 같습니다. 사망현장을 가족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박종철군을 빨갱이로, 최종길교수를 간첩으로 용공조작한 발상과 수법도 똑같습니다. 다만, 박종철군 사건때는 용기있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박종철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수 밖에 없듯이, 최종길교수의 진상도 마침내 밝혀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종길교수의 죽음은 유신압제 최초의 희생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호소합니다. 공소시효 따위는 문제가 안됩니다. 인간의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양심에 찬 증언을 호소합니다. 15년 동안 감추느라고 겪은 양심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자고 호소합니다. 만약 고문 치사케한 장본인들이 양심의 고백을 한다면, 저와 우리 사제단은 그의 잘못을 질타하거나 꾸짖기보다는 그의 회심(悔心)에 같이 눈물흘릴 것이며, 그동안의 양심의 고통에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최종길 교수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한 우리 모두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자고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제단 역시 1974년 12월에 이미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다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던데 대하여 고인의 영령과 유가족 앞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성년으로 자란 광준, 회정 두 유자녀에게 뭐라 위로의 말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유가족들의 가슴에 15년 동안 쌓인 한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유자녀들에게 한줌 부끄럼없이 진실을 말해주고, 우리시대의 어둠과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최교수가 봉직했던 서울법대의 교수들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학생들도 최교수의 사인규명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그 살벌했던 유신

시대에야 시대의 죄와 벌을 온몸으로 떠맡아져야 할 저희 사제들이, 최교수의 억울하고도 의문에 찬 죽음을 껴안았지만, 지금은 “법의 정의”를 수호하고 키워나가야 할 여러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5년전 최교수가 당한 그 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일이요, 대신 떠맡아진 십자가가 아니었습니까? 바라거니와 최교수의 사인을 한줌의 착오도 없이 밝히고 나서, 법대에 있다는 그 ‘자유의 종’을 힘껏 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제단 역시 솔선하여, 그 맨 앞에 서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진짜 최교수의 사인을 규명해 나가자고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다짐했던 사실을 오늘에 더듬어, 오늘 저희 사제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14년 전인 1974년 12월 18일, 우리는 바로 이 명동성당에서 ‘인권회복을 위해 죽은 사람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열고, 최종길교수를 이렇게 추도했었습니다. “당신의 자살은 날조된 것입니다. 지금 미망인이 된 당신의 부인께서도 스스로가 의사이면서도 시체를 검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인께서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신을 고문하는 사람이 고문하는 기계의 조작법을 몰라 그렇게 되셨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우리들 용기없는 사람들은 당신의 죽음을 두고도, 중앙정보부가 두려워 쉬쉬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신을 추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용기없음을 안타까워 합니다. 오늘에야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이렇게 당신의 추도미사를 올리게 되음을 부끄러워 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다같이 모여 통곡으로 추모하오니 원컨데, 최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뜻을 굽어살피사 우리에게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의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옵시며, 독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러나 솔직히 말해, 최교수의 억울한 죽음에 공개적으로 의문만 제기했을 뿐, 그리고 형식적으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을 뿐, 아직은 진상도, 최교수의 누명도 하나도 밝혀지지거나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의 진상조사에 크게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검찰의 조사방향과 진도를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박종철군 사건때도 검찰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각본을 따랐을 뿐 권능을 가지고 조사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난날 중앙정보부, 오늘의 안전기획부를 감히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 전주에서 있던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진상규명대회’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 6월 25일 전북 익산군 여산천주교회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은 광주학살을 고발하고 공수부대원들의 회개를 촉구한 사제에 대한 악랄한 금마 주둔 제7공수여단의 보복행위였고, 그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누구인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이 누차 진상규명을 요구해 왔어도 조사의 시늉만 낼 뿐 진실에 접근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제는 신부들이 주최하여 진상규명대회를 열고 평화적인 시위를 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답변은 방패와 군화발이었습니다. ‘누가 7공수를 모르나요’라고 쓴 종이를 든 할아버지나 ‘우익테러 근절하라’고 쓴 종이를 든 신부에게도 방패가 내리쳐졌습니다. 이는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진상을 은폐하려는 공권력의 폭력인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진상규명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던 전주 전동성당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재의 원인을 전기누전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전



북대 전기공학과 교수, 치안본부 감식반의 감식결과 모두 전기누전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성당과 담을 같이 하고 있는 성심여고의 학생과 교사들은 성당에 연기가 치솟은 후 잠바 차림의 머리가 짧은 청년 4명이 성당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동성당의 주임신부나 보좌신부는 전주지역에서 민주화운동이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두 분입니다. 우리는 전동성당의 화재를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정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동성당 화재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종길교수의 고문살인사건,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 전동성당 화재사건을 보면서, 진실은 스스로 그 빛을 발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의 죄를 면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합니다. 진상조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더욱 확대되고 커져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든지, 대검찰청에서 하든지 해야 그나마 조사다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상조사에 대한 헌신과 참여가 더욱 간절하고 절실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최교수를 추도하면서, 최교수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비열한 누명을 우리 정의로운 사람들의 손으로 벗겨내야 하겠다는 우리들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보복하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는 고문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열망을 함께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결의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최교수의 죽음을 어둠 속에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 10월 18일

## 7. 누가 한뼘의 손으로 저 밝은 태양을 가리려 하는가?

(1988년 10월 17일, 서울지역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 서울대 최종길교수의 사망사건과 박창신신부에 대한 테러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

“감추려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은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마태오 10,26-27)

감추려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온 천하에 알려지게 마련이다. 지난 5공화국 시절, 전두환정권에 의해 행해졌던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이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도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에 의해 그 진상이 낱알이 공개되지 않았던가? 진실을 감추고자 발버둥쳤던 군사정권의 허구는 6월의 범국민적 투쟁으로 무너지고 그 어리석음은 세상의 비웃음 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최근, 감추어졌던 지난날 군사정권의 죄악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진상을 은폐하고자 하는 노태우정권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폭로하게 된다. 군사정권의 핵심부였던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령부가 군사정권의 유지를 위해 갖은 폭력을 일삼고, 진상의 조작, 은폐를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체 어디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노태우정권은 과거의 사실들을 은폐함으로써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진 서울대 최종길교수의 사망사건, 박창신신부에 대한 테러사건의 진상이 현 정권에 의해 감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행에 가담한 주모자 및 공모자를 비롯하여 은폐조작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위의 두 사건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에 의해 저질러진 만행임이 분명하다.

1973년 최종길 교수의 사망사건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본인의 자살”이 아니며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된 고문치사사건임이 분명하다.

중정은 박정희정권의 유지를 위해 늘상 남북분단현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많은 양심인이 억울한 간첩으로 둔갑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대 최종길교수의 경우도 그 와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최교수는 당시 중정이 계획한 “유럽거점 간첩단사건”에 휘말리면서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게 되었다.

최교수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중정 수사과가 아닌 공작과에서 조사받았던 점, 발표한 자살현장을 검증한 결과 유혈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시체부검장소에 변호인과 의료진의 참여를 중정이 막았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최교수가 서울대 교수회의에서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적극 반대하고 오히려 학생을 폭행한 중정에 항의하자는 양심적 발언을 행한 것이 중정의 알뜰한 간첩단조작에 휘말려 사망케 된 직접적 연유였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80년 공주학살 당시 전두환 군부의 살인만행에 항거한 박창신 신부의 양심적 행동에 대해 쇠파이프와 칼로 보복한 사건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사건의 피해로 지금도 박창신 신부는 한쪽 다리를 못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을 보듯 환한 진상이 정부당국에 의해 감추어진 나머지 이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박창신신부의 증언과 용감한 시민의 제보를 종합해 본 결과,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짧은 머리라는 점, 군대용어를 사용했다는 점, 범인들을 태워다 준 택시기사 “신 모”씨가 이리경찰서로부터 공개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던 점, 당시 금마부대 내에 이산성당을 싹쓸이 하겠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점, 테리에 항의한 신자군인 장재구소령의 직위해제사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보안사에 의해 계획된 테러사건임이 명백해 보인다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처럼 명백한 사실들이 정치권 내에서는 밝혀지고 있지 않는 것인가? 현 정권은 적극 나서서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회피, 축소하고자 함으로써 전두환정권의 유산상속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어디 비단 위의 두 사건뿐이겠는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5공화국 비리사건, 광주학살 사건, 삼청교육대 학살사건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군사정권의 죄악상들이 현 정권에 의해 감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연코 주장한다.

군사정권이 저지른 사건들의 진상은 날날이 밝혀지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상에 따라 사건관계자들은 국민의 양심에 의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이 화합하고 진짜 민주화된 시대로 가는 첩경인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정감사활동을 벌이는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군사정권의 죄악상을 밝히는 일에 현재 각 야당은 지극히 어물쩍한 태도를 보이거나, 철저한 진상규명에 주력하기 보다는 당리당락을 앞세운 정치공세에나 만족하는 등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한 의지나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같은 야당의 태도는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군사정권이 저지른 죄악상을 밝히는 데 철저히 나설 것을 야당에게 권고한다.

모든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도대체 떠오르는 저 태양을 누가 한뼘의 손으로 가리려 한단 말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를 증거하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양심세력과 더불어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1. 최종길교수의 사망사건, 박창신신부 테러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라!
2. 노태우정권은 진상규명에 대한 회피, 축소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3. 최종길교수에 대한 고문치사, 박창신신부에 대한 테러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즉각 색출, 처벌하라!
4. 정보기관에 의해 조작된 간첩단사건 연루자들을 모두 석방하라!
5.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보안사, 안기부, 정보사를 해체하라!
6. 광주학살, 5공 비리의 원흉인 전두환 부부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1988년 10월 17일  
서울지역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 8. 故 최종길 교수 변사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메 시 지

1993년 10월 18일, 故 최종길교수 제20주기 추모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일동  
공동성명

소위 유신통치 제1년을 맞이하던 1973년 가을 이 나라의 정국은 무척이나 암담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한 항거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생들이 앞장섰습니다. 학생들은 체포·연행·구금되었으며, 당시 최종길 교수는 이 대학의 학생과장직에 이어 교무과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수회의 석상에서 학생들을 옹호하면서 정권당국에 대한 교수진의 항의표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정보부에서 발표한 그의 변사(1973. 10. 19. 01:30)로 귀결되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1973. 10. 25)에 의하면, 故 최종길 교수는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의 총책 이재원에게 간첩으로 포섭되어 입북하여 미화 천 불을 수령하고 62년부터 67년까지 매년 2회씩 활동상황을 보고했으며, 70년 미국체류중 북한공작원과 접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발표에 의하면 최교수는 여죄수사중 투신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보부의 터무니도 없는 날조였으며, 더욱이 중앙정보부는 유족에게 진상규명활동조차 봉쇄하였습니다. 우리의 용기있는 석학에게 씌워진 누명은 오늘날까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스무해가 지난 오늘날 그의 죽음은 우리의 뇌리에서 망각하려 하고 있으며, 그의 누명은 지금도 유족의 가슴에 깊이 낙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故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民主大義의 증진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師表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실추된 師道의 浮揚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길 교수의 변사와 누명은 군부정권이 저지른 비리·비행·범죄 가운데 가장 사악한 것이며, 오늘 우리가 맞이한 문민시대는 이러한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故 최종길교수 제20주기 추도식 참석자 일동은 그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그의 변사진상규명과 마땅한 명예회복을 관계당국에 촉구합니다.

1993년 10월 18일  
故 최종길 교수 제20주기 추도식 참석자를 대표하여  
목사 박형규







## 인사의 말씀

최 승 화 (서울대부총장 · 총장직무대행)

여러분은 오늘 본 대학교 법과대학 최종길교수님의 25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최종길선생님께서 본 대학의 법과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우리나라 민법학의 중견교수로서 교육과 향간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면서 동학 후배 선배분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한마음 한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또한 후배교수와 제자들로부터 더할 수 없는 시대적 지성인으로서 존경을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시대에 암울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타개하신 최종길 선생님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절망감과 손실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그 생존이 1차적 의미라고 합니다만, 타개하신 최종길 선생님은 25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당당하게 온 모습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옳은 자만이 의로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최종길 선생님을 추모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스승의 가르침의 길로 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임을 주관해 주신 최종길교수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기타 많은 분들의 정성어린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 식 사

배 재 식 (공동대표 · 서울대명예교수)

오늘 고 최종길교수 제25주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추모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그를 기리며 또 명예를 회복하게 하는 모임을 갖게 된 것을 감격과 함께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최박사를 마음속에 추모하면서도 이러한 기회를 번번히 갖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새삼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마음에 힘을 조금이라도 덜고 그의 인덕과 학덕을 돌이켜 보고 동시에 그의 억울함을 풀어보자고 오늘 그가 배우고 가르치던 바로 이곳 서울 법대에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야 조출하지만은 뜻깊은 추모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랜 침묵속에서도 최박사는 오히려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를 그리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는 의리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의욕적이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소신있고 그것을 과감히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엄한 스승으로 꾸짖기도 잘했지만 동시에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어버이같은 심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다음 식순에서 여러분의 추모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고인을 추모하는 저의 말은 여기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추모식은 고인의 영혼을 달래며 그를 광명으로 이끌어내어서 모든 사람이 그의 이름 최 종 길을 기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다짐이자 그 일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고인의 추모하는 여러분의 글을 모아서 한편의 추모집을 출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고인의 유고를 편집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할 계획도 아울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약력 소개

## 김 학 동 (서울시립대법대교수)

고 최종길교수님의 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최종길교수는 1931. 4. 28 충남 공주군 상심리에서 출생하시어 일찍 인천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셨습니다. 1951년에 제물포고등학교의 전신인 인천중학교를 졸업하시고 학도병으로 군복무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195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시어 1955년 9월 위 대학을 졸업하시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시어, 대학 졸업 후 곧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시어 민법을 전공하여 1957. 3월에 석사과정을 수료하시었습니다. 수료 후 당시에는 생각하기조차 매우 어려운 유럽 유학길에 올라 1957. 6월부터 2학기에 걸친 스위스 쾰리히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1958.4월부터 독일 쾰른대학 박사과정에서 민법과 국제사법의 대가인 케겔(Kegel)교수의 지도를 받았으며 1961년에 약관 29세의 나이로 한국민법 및 국제사법에 있어서의 이론이란 논문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학계에서의 최초의 독일 박사학위로서 고인의 학자로서의 개척자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우리대학 여건으로는 이러한 박사학위 경력만으로도 쉽게 대학강단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학문적 열정에 불타 쾰른대학의 국제사법 및 외국사법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독일인으로서도 학자의 최고의 영예인 교수자격논문 하빌리타제운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학교육에 대한 사명감에 쾰른대학에 남아달라고 하는 제의를 뿌리치고 1962. 9월에 귀국하여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후 고인은 1964년에 전임강사로 발령받아 조교수, 부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백경자여사님과 혼인하시고 슬하에 광준, 희정 1남 1녀를 두셨습니다. 고인께서는 소위 학원사태가 가장 극심하였던 1967. 8월부터 법과대학 학생과장직을 맡아 학생지도에 온 정열을 다하였습니다. 학생과장직으로 계신 동안 학생들의 단식논쟁을 만류하면서 흘린 고인의 눈물과 절규는 학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고인은 다시 학문에 정진을 위하여 1970. 3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학의 연칭연구소의 교환교수로 2년간 연구에 몰두하였고 이 기간동안 미국의 석학 코헨교수와 폰 레름교수등과 교류를 가지셨습니다. 귀국후 1972. 8월에 정교수로 승진하시었고 그동안 50여편의 주옥같은 논문을 발표하시고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민법총칙교과서의 원고를 거의 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인의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사명감은 학생들의 유신반대시위에 대한 경찰의 진압과 폭력을 좌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대교수회의에서 학생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는 무도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시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3. 10. 16 중앙정보부의 유럽간첩단 수사 협조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인이 정든사람들을 떠나는 마지막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인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10월 19일 1:30에 이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소식은 고인의 유해가 치워지고 사망원인이 은폐된 상태에서 사망 후 6시간이 지난 후에야 통보되었고 변호사나 의사의 입회도 거절당한 채 검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장례식에는 오직 가족만이 참석하고 동료교수나 제자들에게는 일체 연락하지 못하도록 강요되었고 고인을 장지에 모시는 과정에서도 유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감시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6일이 지난 10. 25 중앙정보부는 고인이 간첩협의를 자백한 후 7층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사망원인을 발표하였습니다. 1974. 12. 18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추모미사에서 고인의 사망원인이 전기고문에 의한 타살임을 폭로하였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고인의 사인규명을 촉구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유신의 암흑과 공포에 억눌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덮여 버렸습니다. 그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고인의 사망시효기가 되는 즈음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서 고인의 고문치사 진상규명을 검찰에 제소하였으나, 검찰은 고인의 죽음과 관련된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중 일부가 물증이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은 지적하였으나 명백한 사인규명은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고인의 사망에 관한 의문점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으나 정부는 아직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은 학자로서 불타는 학문적 열정과 불굴의 개척자 정신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고인이 최초로 독일의 박사학위 취득을 얻은 것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의 교환교수시절 1년의 연구기간을 마치고 다시 1년을 휴직하면서 서까지 연구를 계속하였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완전한 웃음을 머금은 모습에서 느껴지는 대로 인자하시고 자상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마치 정다운 누님처럼 사랑과 애정으로 돌보아주셨습니다. 강의시간은 언제나 부드러움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나 부정과는 타협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고인을 접한 사람은 누구나 고인을 신뢰하였습니다. 외국유학시절 교분을 가졌던 독일의 케겔교수나 미국의 코헨교수 등이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신을 정부에 제출하거나 그를 밝히어 쓴 점에서도 그의 이러한 면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인천고등학교에서 빼어난 수재로 이름나 있었습니다. 수재하면 흔히 가지는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고인께서는 온화함과 성실함 그리고 인간적 신뢰를 겸유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대인의 면모였고 우리들의 사표였습니다. 그러기에 고인의 뜻하지 않은 죽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과 아울러, 크나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인의 죽음은 고인 개인의 또 그 유가족만의 사별일 수 없습니다. 그는 암흑의 시대, 공포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모두의 사건이며 아픔입니다. 고인의 사인을 밝히는 것은 고인께서 추구하시던 정의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께서 지나간 세월의 회한을 풀고 편안하게 잠드시도록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저는 고 최종길교수께서 사망할 당시 법대학장을 지내셨던 그리고 고인의 스승으로서 고인을 가장 아끼셨던 고 김중환 교수님의 자식입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셨던 제자의 죽음을 보시고도 아무런 말씀도 못하고 침묵하시고 괴로워하셨던 25년 전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윗세대에서 못다한 사랑과 애정을 저희 세대에서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고 최종길 교수님의 약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 모 사**

이 수 성 (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오늘 이 자리는 서울법대 100주년 기념관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의 25주기를 맞는다는 것이 '어떤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 선생님께서 교무과장이시고 - 요새 말로 하면 교무담당 부학장입니다 - 저는 학생과장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73년 유신 직후 서울대학이란 것은 정의와 부정, 옳고 그름의 대변장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교수란 직분은 학생들이 어디로 잡혀가고 퇴학될까봐 보호해주는 입장이 되어야 하고 정부에 반대하면서도 학교의 공정을 지켜야 하는 그런 두 가지 모순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 계신 정부공직자는 모르시겠지만, 70년대 초 세월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함부로 말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최종길교수님은 약 10년간 교육했었습니다. 조교수로 오셔서 부교수, 교수, 교무과장, 학생과장,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보다도 최종길교수의 인격을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안 것은 실제로 돌아가신 10월 19일 이후 며칠 지나서입니다. 그 충격은 말도 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분은 옳은 일을 주장하는 데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살할 정도의 그런 강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그 분은 공산주의자, 간첩이 되기에는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앞에 계신 백경자여사 사모님과 회정, 광준을 데리고 창경원에 산책와서, 같이 우연히 만나서 거닐면서, 얼마나 사모님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눈으로 역력히 보았습니다. 뉴욕의 바닷가 페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또 한번 그런 조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계시지만, 누이동생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누이동생이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통곡통곡 하시고, 며칠 지나서 까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우시던 생각이 지금도 한 폭의 병풍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할 충격은 너무 컸습니다. 요 앞에 계신 우리 부총장 현재 총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최송화선생, 법과대학 학장 김유성선생, 저기 충남대 법대학장으로 계신 서 민교수, 몇사람 그 당시 35세부터 37,8세까지 되는 교수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있어도 최교수의 사연을 밝혀야겠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결정했었습니다. 몇 번 모임을 갖고 - 그 당시 이런 모임을 갖고 그런 결의를 표명한다는 것은 생명을 던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랴 해도 최종길교수는 간첩일 수 없고, 사랑을 모르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순결, 그렇게 열정을 가지셨고, 배재식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정이 많은, 그런 분이 다신 없을 겁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횡횡하는 요즘 세상에서,



머리가 좋으면서도 덕과 정의를 갖춘, 평화와 사랑을 추구하는 너무도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런분의 죽음을, 발표하는대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모임까지 밝혀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보부에 불려가서 밤새도록 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모든 사람들이 최종길교수는 결코 간첩일 수 없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고나서 그 다음 체감한 것이, 홀로 계신 사모님, 광준, 희정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요청해도 침묵하고, 이런 말은 밝히고 싶지 않지만 동료 교수조차도 '간첩한테 대하여 조위금을 내느냐' 이런 정도의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 최교수는 간첩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무 큰 걱정을 했습니다. 모란공원에 있는 묘지에서 저기 앞에 계시는 형님, 누님.... 처음에는 장사 지내는 것을 몰라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해외에 나가있지 않는 한 저희들 교수들은 꾸준히 갔습니다. 사모님께서 의사시지만 대단히 강인하였습니다. 훌륭하게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김옥길총장이나 여러분들이 물론 도와주셨습니다. 함세웅신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강신욱 변호사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움이 있더라도, 사모님께서 선생님에 남기신 자식, 선생님의 힘까지 같이 모아서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는 확신, 신념 - 이것이 없으면 저 자녀들의 오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무도 선생님이 간첩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돌아가셨을까? 선생님의 사인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 그 동안 수없이 많이 죽어간 젊은이들의 사인도 세상에 밝혀질 것입니다. 서울대학 학생이 바위를 달고 바다에서 자살했다, 어떤 동굴에서 자살했다, 기차철로 위에서 자살했다 - 여러 가지의 의문사들이 많습니다. 한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죄없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 최종길선생은 그중의 대표적입니다. 최교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돌아가셔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사랑과 그 눈으로 부인, 자녀들, 후배들, 선배들, 우리나라 제발 잘 됐으면, 작게는 우리나라 법학의 제기를, 평화와 조화와 사랑을 지켜가는 그런 법률이 되었으면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원한을, 증오를 가질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증오가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내 사인을 정당하게 밝혀달라. 안 그래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내가 몇몇한 사람인 것을 밝혀라. 그러면 나는 당신들을 욕설하지 마라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거듭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를 증오하고 그 사람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너무도 억울한 선생님의 죽음, 수 없는 젊은이들의 죽음, 진상을 밝히고 그 영령을 위로하고,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권력을 위한 무도한 불법적인 - 이런 인간에 대한 - 짓밟음이 없도록 하는 간절한 희망 때문에 오늘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편안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 모 사

김 유 성 (서울대 법대학장)

25년전, 이수성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시 학생과장의 보직을 맡고 계시던 이수성선생님으로부터 최교수님께서 정보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 소식을 알리고 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배재석교수님 댁으로 가는 그 택시 속에서 한없이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최교수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곁을 떠나셨다는 점에 대한 섭섭함보다는,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그야말로 분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느 죽음이 서럽고 아쉽고 섭섭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까만, 특히 우리 최종길교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그 어느 경우보다도 분하고 아쉽고 섭섭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실 수도 없고, 돌아가서는 안되고,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던 분이 너무나도 많은 한을 전해주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최교수님의 죽음으로 저희는 우선 민법학계, 아니 한국 법학계의 거목을 잃었고 그 수많은 희망의 기대를, 또한 학문적 업적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교수님의 죽음으로 저희 최교수님의 정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위엄, 강인한 생각을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동료교수들은 그러한 어느 분보다도 훌륭한 인품의 소지자이셨던 동료교수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자애로운 형님처럼 따르던 그러한 스승을 한 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수님께서 그 어느 분보다도 자애로우시고 다정하시고 정이 많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언제 마음의 괴로운 일이 있어서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미아리쪽에 댁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시내까지 달려오셔서 술을 사주시면서 "네가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까, 나는 온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다"하시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해 주시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많은 분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추모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저는 누구보다도 그분을 기억하고 존경하고 항상 잊지 않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아까 이수성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분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고 그래서 안심하고 永眠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맺어 드리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결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가족여러분에게 유족여러분에게 앞으로 무한한 행복이 깃드시기를,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추모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 모 사

함 세 응 (상도동천주교회주임신부)

저희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저희들에게 창조적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늘 사제로서 살아 오면서 저 자신도 저 자신의 잘못을 늘 반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 정치, 사회지도자들을 무섭게 꾸짖으셨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위선자들을 책벌하시면서 '너희들이 예언자들의 이전보다 왜 크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고 네가 그때 살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말 자체가 너희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하면서 예수님께서 종교사회지도자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최종길교수님 25주기를 함께 지내면서 최고수님의 좋은 덕을, 훌륭한 삶을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우리 모두 25년 동안 어려웠던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 왔었는가라는 그러한 반성의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최종길교수를 죽게 한 원인자들이었다는 것도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길교수를 죽게 한 장본인들이 어엿이 살아있고 그때 책임자들이 또 현재 여러 직책을 맡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것을 묵인한 채 이러한 형식적인 추모식을 연다는 것 자체가 성서의 말씀을 따라 해석한다면 위선일 수도 있다 이점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함께 반성을 합니다. 저는 최종길교수의 죽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해석합니다. 물론 아프고 억울하고 또 부인, 자녀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져다 주었지만 바로 최고수님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정화시키고 또 우리나라를 정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사제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법조인들을 모셔다가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 원로 변호사 한분께서 이 한국사회를 망친 것은 법학도들 그리고 언론인이다. 이 법학도들과 언론인들은 기생들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그 말을 종교와 관련시켜서 종교계도 똑같이 기생역할을 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만, 정말 오늘 이 자리는 법과 정의를 생명으로 살고있는 서울대학 법과대학 가족 모두의 회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뉘우칩니다. 최종길교수의 죽음만이

아니라 익명의 많은 분들, 우리시대의 죽어갔던 젊은이들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바로 그분들의 죽음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은 정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똑같이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죽음, 또 잘못된 체제에 의한 죽음, 비밀스런 죽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개적 고발의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날 이전에 잠시 지난 74년 저희들의 기도, 또 88년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검찰을 통해서 고발했던 얘기를 되새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2장에 나오는 무죄한 어린이들의 죽음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억울하게 죽어간 무죄한 어린이들이 바로 그 시대의 순교자들이었고 늘 기억해야 하는 순교자들이었다라고 최종길교수님을 진심으로 우리시대의 순교자, 그리고 순국자, 순직자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봉직하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 또 교수하시는 동안 학교에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셨고 그리고 그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이 아프지만 참으로 자랑스러운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25년만에 공식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추모식을 갖게 된 것은 자랑이기도 합니다만 또 큰 부끄러움이 따르는 측면, 올해부터 매 해 바로 서울대학의 공식적인 행사로서 서울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숨겨진 모든 익명의 청년, 학생들, 시민들을 기리는 그러한 추모의 모임이 될 때 참으로 최고수님의 죽음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시대 안에서 확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수님의 영원한 안식, 그리고 저희들의 봉사적 삶을 다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추 모 사

박 연 철 (변호사)

박연철입니다. 저는 68학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68 또 69, 70 이렇게 최고수님께 배운 많은 저희 동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추모사, 추모사를 하나 바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여러 제자들의 가슴 속에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감회가 있고 또 존경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고수님께서 가신지 스물 다섯해가 지나서 저희 팜플렛에 소개하는 그러한 문건에 최고수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사진을 대하면서 저희는 참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1968년도에 입학했던 저희들에게 최고수님은 너무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2학년이 되었던 1969년도에 저희는 그분에게서 처음으로 민법총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수성 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시 학생과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늘 호흡을 같이 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저희는 1969년도에 참으로 그 평화스러운 몇 달 동안에 사제시간에 그러한 면학의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3선개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부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들 법학과에서 민법강의를 담당하셔서 강단에 서 계셨을 때에는 우리는 그분의 뜨거운 열정과 견고한 성실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성실하고 또 열정적이었던 그러한 법학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은 휴강을 하시는 일도 없으셨고 또 강의시간을 단축하시는 일도 없이 강단에 서시면 시종 열띤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콰유직교수님과 쌍벽을 이루어서 민법강좌를 맡으셨고 또 우리 민법학계를 이끌어나갈 그런 신진학자로서의 기상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저희들도 덩달아서 면학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만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법학계가 식민지시대에 전수되었던 일본법학에서 벗어나서 자주적 학문의 기틀이 세워지겠구나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고수님께서서는 이듬해인 1970년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환교수로 출국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학부과정에서 더 이상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민법의 첫발을 인도해주신 분으로 저희들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분이십니다. 법대에 입학할 하면 예나 지금이나 고시로 인해서 마음의 갈등을 크게 겪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교수님은 초지일관해서 학문연구에 정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크고 엄연한 사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고시로 인해서 우리 귀중한 대학생들이 왜곡되는 것을 얼마나 염려하셨을지 이제 그분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많은 논문과 자료들을 돌이켜보면서 아 그때 벌써 이와 같은 주제를 연구하셨구나하는 찬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73년도 가을 이와 같은 좋은 계절에 교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짧은 소식,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발표문을 보았을 때 저희들은 모두 격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애통하고 너무나 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폭압적인 유신독재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주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안기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았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아탑에서의 고고한 양심, 지성을 갖추신 교수님의 의연한 자세가 나날이 경색되어 가던 유신정국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천추의 한이 서리는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암흑시대를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 나라의 실체를 알려 주셨고 또 그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저희들에게 법학의 스승으로서, 그리고 향시 저희들을 각성시키는 희생자로서 저희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셨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서 정권안보를 꾀했고 또 그 고매한 인격과 학문마저도 허무하게 짓밟아 버리던 그러한 정권에 대해서 강인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과제를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세에 영합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학문에 정진해서 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나라를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전환시켜서 인간의 존엄성이 비참하게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아직도 교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정확한 경위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교수님은 간첩혐의를 자백했고 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창문을 통해서 투신자살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보부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고문과 협박으로 교수님에게 간첩의 누명을 뒤집어 씌울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문 하나로 교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안기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직적인 자기방어나 또 소속직원이었던 자를 비호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당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당시 관련자들을 조사해서 최고수님의 죽음의 경위를 진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수님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흘러간 많은 시간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역사에서는 무의미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서 우리 교수님의 인격과 명예가 공식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비보를 접했던 그 당시의 경악과 분노는 세월이 흘러서 진정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의지와 의욕이 새롭게 더욱 뜨거워져 가는 것은 우리 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깊었고 또 자유민주국가에 대한 소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의 영령께서 항상 저희 후배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한 영원한 지도자가 되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추모사를 마칩니다.



## 제 언

## 한 인 십 (서울대법대교수)

저는 77학번입니다. 77년도에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길교수님에 대한 어떤 학문의 세계와 깊은 인간적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학문적 명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한 교수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타살당하고 그 진상이 아직도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는 이런 나라에 살아가는 것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의 그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세워지고, 그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조그마한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유신독재의 흐름이 가장 깊었던 1973년 서울대 법대의 최종길교수님이 중앙정보부 조사차 불러갔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지 벌써 4반세기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진실의 접근은 봉쇄되었고 그로 인한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최종길교수님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데에 대한 죄책감과 좌절감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가족들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아픔, 그 상처, 그 분노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인권의 국정지표를 내세운 국민의 정부를 맞아 최종길교수에 대한 추모식을 거행하면서 끊임없는 사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합니다. 최교수님의 죽음은 간첩단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투신자살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체의 부검도 가족의 입회도 금지된 가운데 중앙정보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종길교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모든 이들은 그가 간첩단 사건에 관여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자살을 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이 개인이 자살하도록 내버려둘 만큼 허술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중앙정보부에 의한 고문과 인권유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당시의 암울했던 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최종길교수님의 죽음이 간첩조작을 위한 흑심한 고문수사과정에서 빚어진 권력기관의 살인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한 당시의 수많은 고문에 대하여 관련기관이 스스로 고문사실을 인정 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박종철군의 사망조차 다른 증인이 없었던들 자연사로 덮어 버리려 한 그 정황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의문은 의혹의 단계를 넘어 확신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입니다. 4반세기가 흐른 지금 우리는 누구의 처벌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은 하나하나 백일하에 밝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실이 없이는 어떤 위로의

표현도, 용서의 기도도, 영혼의 안식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난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천명하였듯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과 국가기관에 의한 사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그 사실을 알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그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길교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우선 최교수님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구하지만 그 동안 비민주체재하에서 벌어진 의문사의 사례에도 똑같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 의문사의 진실도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죽음을 당했다는 의문이 단 한 건이라도 제기된다면, 모든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관련인을 소환하는 등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민주정부의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맺힌 한을 풀어주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나라사랑과 국민통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선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의문사의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관계법을 만들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인권법이 제정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문사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임있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진실의 기초 위에서 세워지는 정의만이 인간의 존엄성을 으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반석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 축 도

## 안 경 철 (만리현감리교회담임목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받는 충만하신 역사가 25년전 군사독재정권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그러면서도 불의에 동조하지 아니했던 고 최종길 성도님의 영혼 위에 와, 오늘 그의 인격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이 추도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또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 유가족인사

최 광 준 (부산대법대교수)

이와 같이 성대한 추모식을 마련해 주신 배재식선생님과 이수성선생님, 김유성선생님, 최송화선생님을 위시한 여러 추모위원님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에 들어와 아버님의 25주기 추모식장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보면서 지금부터 25년전 73년에 유난히도 추웠던 가을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의 관을 넘겨받아 중앙정보부 직원들의 미행과 감시속에 모란공원묘원에 안치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관속에 이젠 고인이 되신 아버님께서 누워 계신다는 사실을 10살의 나이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관을 뜯어서 제발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한 번 보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버님의 동료교수도 선후배나 친구도 아버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도 그 아무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난 25년은 저희 유가족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외로움의 세월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 주셔야 했고 간첩의 자식이란 말을 혹 저희들이 듣고 마음의 상처로 남을 세라 초등학교를 여러 번 옮겨주셨지만 슬픔과 아픔을 잊지는 않더라도 아버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웃으며 밝게 살아가도록 가르치셨고 그래서 그랬는지 저와 가까운 친구들조차도 오랫동안 저와 제 동생 희정이 그리고 특히 그렇게 밝은 웃음이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크나큰 한을 안고 살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었습니다. 아버님은 장례식도 없이 땅에 묻히셨습니다. 쓸쓸히 그렇게 가셨지만 오늘의 이 추모식을 지켜보시면서 더 이상은 쓸쓸하게만 생각지는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님께도 손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유성이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바로 이 나이에 제 동생 희정이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행복한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그 앨범들을 항상 들추어 보면서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동생의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리움이나 아픔이 몇 마디의 말로서는 위로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지껏 제 동생과 어머니께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희정아 고맙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가족과 같은 아픔과 한을 나누고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암울한 과거는 아버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들의 자식이, 부모가, 그리고 형제들이 눈물을 다 거둘 때까지 저희들 역시 눈물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저희 유족은 맨 마지막에 눈물을 거두는 유족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 V. 최교수의 동생 최종선씨의 수기 (사건일지)

서울法大 崔鍾吉교수 중앙정보부가 죽었다.

(1988년 11월호 「신동아」에 게재)

1973년 10월 26일 세브란스병원 정신병동.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이곳을 선택했다. 지금의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후일을 위해 형님의 죽음에 대한 오늘의 한을 생생히 남겨 두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형님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씌워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어제 저녁, 쇼크를 가장하여 이곳으로 들어 왔다. 그들의 감시범위 속에 남아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뜻하는 글을 제한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아침 나의 친구인 레지던트에게 펜과 노트를 받아 이 글을 쓴다. 나는 이 글을 완전히, 조속히 쓰고 난 후에야 이곳을 떠날 것이다.

이 글은 앞으로 우리 가족 또는 고인의 동료교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위해가 가해질 경우 공개될 것으로서, 나의 최후의 글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글은 진실 이외 아무 가식도 없는 나의 유언인 것이다.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의 형 최종길교수의 죽음과 그 진상,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고문과 살인에 관련된 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만큼이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시급히 이 글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장래는, 아니 내일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나 앞으로 언젠가 진상을 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그만 첫걸음이나마 되어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쓰는 것이다.

## 형은 「반역자」 였나

형님의 죽음-. 것처럼 다정하고 자애로웠던 나의 형이 다시는 이 세상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 언제나 소년처럼 웃으시던 그 동안의 미소.

이 나라의 앞날을 지고 나갈 학생들의 또랑또랑한 눈망울 앞에, 배움의 의지가 불타는 그 눈망울들 앞에 서는 것만이 자신의 소망이며 자랑이라던 나의 형!

츄리히대학에 유학하고 쾰른대학에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법학박사가 되셨으며, 하버드에서 Great scholar and patriot 라고 애도하던, 그리고 모교인 서울법대의 정교수로서 강의와 저술에 전념 하시던 의지의 지성, 집념의 학자이셨던 나의 형!

한잔의 차, 한 권의 책, 한 잔의 술, 한 마디의 다정한 대화 속에서도 무한한 충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나의 형!

두 남매에게는 아버지이기 전에 다정한 친구였고, 아내에게는 어려운 남편이기보다는 투정 많은 큰 어린이, 검둥강아지 블랙키마저 어깨에 매달려 뺨을 핥던 정겨운 사람 나의 형!

외국에 가 사는 누님의 아들 영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전화를 받고는 며칠 몇



밤을 눈물로 지새운 착하고 착한 나의 형!

형님의 비통한 죽음- 우리 누구중 단 한사람이라도 형님의 이 비참한 죽음을 직시하고,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와 한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형의 가련한 영혼은 머물러 설 낙토를 찾지 못하고 조국의 산과 들을 영원히 통곡하며 방황하리라.

언젠가 고인이 숨이 저가면서도 눈을 못 감고 목메어 불렀을 광준·희정 두 남매가 자라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조국을 배반한 역적이었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했을 만큼 큰 죄를 지은 반역자였는가?」고 묻는다면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진실,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그들 유자녀, 나아가서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는 것은, 그들의 작은 아버지로서, 고인과 피를 나눈 형제로서, 이 어두운 시대를 산 한 젊은 시민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믿기에 나는 오늘 이 글을 써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 왜 우리는 침묵해야 했는가

최종길교수사건! 이 사건은 최교수 개인의, 최교수 일가정만의 사건일 수는 없다. 이 사건은 이 암흑의 시대, 천부의인권과 생명이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 공포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며 우리 모두의 죽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우리의 사랑이며 사랑이었던 형을 이토록 비참하게 잃었으면서, 가족 모두가 형에게 씌워진 반역자 누명에 치를 떨면서도 한마디의 외침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고인의 친지인 하버드의 「코헨」 「라이샤워」 교수들의 조의전문에 회답조차 할 수 없었으며, 「워싱턴 포스트」지의 극동총국장 돈 오버도퍼가 형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바다를 건너 찾아왔을 때 왜 우리의 가련한 형수는 피맺힌 통곡을 삼켜가며 침묵해야 했는가?

왜 우리는 고인의 제자들이 집에 달려와 「우리의 교수님은 어디 계십니까?」라고 절규할 때 그들의 등을 두드려 말없이 돌려보내야 했던가?

평소에 고인을 아끼던 친구 동료들도 공포에 질려 고인의 빈소를 찾지 못하는 이 가슴을 저머내는 한을 우리는 왜 쓰러져가며 인내해야 했으며, 왜 장례식은 아무에게도 연락해서는 안되며, 장의차는 서울대 앞을 통과해서는 안되었는가?

왜 그 장례식은 그토록 쓸쓸하고 한 맺힌 장례식이 되어야 했으며, 형님의 시신이 안치(아니 연금)되어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왜 정보부 직원들에 의하여 봉쇄되어야 했는가,

그리고 영구차의 앞뒤를 줄곧 감시하는 검은 코로나차량들과 혜화동 로타리에서 서울대쪽에 배치된 기동경찰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묘소 외곽을 숨어서 감시하던 그 사람들은 과연 누가 무엇이 두려워 보낸 것인가?

최종길교수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왜 당시 학생과장 최종길교수는 제자들이 굶으며 농성중인 도서관 2층을 향해 통곡과 같은 절규를 해야 했던가? 왜 최종길교수는 애국가를 부르며 교문을 나서는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손수건을 눈으로 가져가야 했던가? 형님께서 왜 그들로부터 기피 인물로 지목 받고 있는 하필 이 시기에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죽어간 것인가?

유신 1년이 지나도 유일하게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학원의 저항의 불꽃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썰기를 박고, 학원에 대한 강력한 탄압정책을 펴나가야 할 명분과 계기조성이 필요한 이즈음에, 김대중사건으로 인해 세계여론과 학생,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진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무엇인가의 동기조성이 필요한 이 즈음에, 국민의 시선을 김대중사건 밖으로

돌리고 공포정치의 나사를 조여야 할 명분과 계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즈음에, 학원사태의 핵인 서울법대의 교수가 정보부 안에서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다.

### 생각지도 못했던 반역자 누명

73년 10월 13일 오전 11시경.

나는 당시 중앙정보부 감찰실 직원으로서 정보부 안의 정보부라는 중요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다. 형님께서 하버드에 계실 때인 1972년 1월 23일 중앙정보부 정규과정 제9기에 수석으로 합격, 장기간의 특수교육을 마치고 감찰실에 보직명을 받아 근무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본청지역 식당건물 앞에서 나의 셋째형 친구이며 당시 총무국에 근무중이던 박용규씨를 우연히 만났다. 그 자리에서 그는 「나와 잘 알고 지내는 5국 김석찬 수사관이 통근차 속에서 너의 둘째형에 대해 어느나고 문기에 훌륭한 분이고 그 동생도 감찰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해줬다」면서, 「5국에서 동백림사건 비슷한 사건을 조사한다는데, 북괴 공장원 이름이 이재원이라는 것」과 「너의 형과 이재원은 중학교 동창생으로서 같은 시절 구라파지역에 유학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고 얘기해 주었다.

이재원? 형과는 인천중학교 동창생이라던가? 형이 스위스로 유학을 떠날 즈음 화란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한 사람이다. 그가 간첩이든 아니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박용규씨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모욕을 당한 듯한 불쾌감이 앞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이 편치 않아졌다. 인권유린의 총본산 이라고 비난받는 그들이 평소 곱게 보지 않던 형에게 칼을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인권, 과학적 조사, 묵비권, 변호사 같은 것은 꿈같은 이야기임을 나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아는 정보부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최악의 경우 그들이 그것을 기화로 형에게 다소의 비인격적 모욕을 가할지는 모르나 설마 형을 살해하여 반역자로 누명을 씌우리라고까지는 생각조차 못했다. 죄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하늘이 그들에게 어찌 그런 비극을 내리리라고 예감이나마 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와 헤어져 사무실로 돌아와 직속상관인 이용섭 과장에게 그 사실을 직원신상문제로 정식보고하고, 형이 혹시 수사에 참고인이라도 조사 받게 될 경우 비인격적 대우가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장은 이를 쾌히 승낙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

형에게 혹시 가해될지도 모르는 핏박과 모욕에 대한 불안을 못이긴 나머지 나는 담당수사과의 김석찬을 전화로 불렀다. 우리는 그날 오후 3시에 부내식당에서 만났다. 내가 박용규씨로부터 이미 모든 말을 들었다면서 만약 형님으로부터 조사협조를 받게 될 경우 인격적으로 대우해줄 것을 웃으며 부탁하자, 그도 따라 웃으면서 「이미 실질적인 조사는 종결되어서 최종적인 기자회견발표문을 쓰고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안심시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둘째형에게로 갔다. 형집에 도착하니 마침 형수는 수술을 받고 친정병원에 입원중이고, 광준·희정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형에게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을 대강 말씀드리고, 혹시 CIA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을 불쾌하게 하지 말고 최선의 협조를 다 하시도록 말씀 드렸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교수회의는 물론 매사에 당분간이



라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말씀드렸다. 형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형은 「그들이 나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을 것」 이라고 웃으면서 무엇인가 확신하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번 교수회의에서 항의발언을 하셨고 평상시에도 타협을 모르는 성향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부터 형님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닌 사상문제인데 설마 한들 어떻게 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다. 형은 「어쨌든 그놈이 빨갱이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딱하게 되었구나」 하시면서 「그놈이 빨갱이이기 때문에 나에게 수사협조를 받는 게 목적이려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오랜만이니 술이나 한잔 같이 하자」 기에 얼음 띄운 진을 한잔씩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 정보부 출두

그로부터 사흘째인 73년 10월 15일 저녁 퇴근 무렵, 나의 직속과장 이용섭이 나를 부르더니 5국 안홍용과장에게 가보라는 것이었다. 나는 안과장에게로 갔다.

「감찰실 최중선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최선생께서는 서울 법대 최종길교수의 친동생이시라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재원이라는 간첩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형님께 말씀드렸나요?」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도록 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우리에게 협조해주시시오. 그러면 선처하겠습니다.」

「무엇을 선처한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선처 받아야 할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빨갱이 잡는 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의 협조를 다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형수께서 입원 중이시던데, 형수께서 퇴원하신 다음에 형님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게 좋으시겠습니까?」

「수사에 협조하는데 형수가 입원한 사실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언제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형님을 모시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부에서 형님으로부터 수사협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와 만나 들어가 끝내버립시다」 고 말씀드렸다. 형님은 「아침에는 곤란하다. 너도 알겠지만 데모로 휴장을 해오다가 오늘에야 첫 강의가 시작되는데 학생들은 공부만 해야 한다고 설득하던 교수가 첫 강의에 빠질 수 있겠느냐. 그쪽에 물어서 오후 2시경이면 어떻겠는지 물어봐서 연락해달라」 고 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안과장에게 형님의 사정을 이야기 했으니 오후라도 좋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오후 1시 45분, 나와 형은 아스토리아호텔 지하다방에서 만나 차를 한잔 마시고 남산 청사 정문에 도착했다. 나는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형님께서 오셨음을 알렸다. 담당과의 변영철직원이 나와서 형님을 안내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형님이 그를 따라 들어가기 전 나는 「그들을 믿어도 좋을가」 하는 불안을 감추고, 「형님, 이 못난 동생의 직장 이때 한 번 봐 두십시오」 하며 웃었더니, 형도 「허허! 말로만 듣던 남산에를 다 들어가 보게 되었구나」 하면서 같이 웃으셨다. 이것이 나와 형의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될 줄이야.....

### 선처만 믿고 흘려보낸 시간들

그날 저녁, 나는 출입자통제소에 들러 외부인 출입시 규정상 맡겨야 하는 주민등록증보관함을 보았다. 형의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있었다. 덜컥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이미 4시간이 경과했는데도 형님께서 나오시지 않는 것은 수사협조가 아니라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쳐들었으나 설마 생사함을 사상범으로 만들랴 하는 마음에서 그날 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속수무책으로 흘려 보냈던 것이다.

다음날 새벽에도 주민등록증은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말이 좋아 협조지 불길한 일이 꾸며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직감이 들었으나 그때까지도 형님의 결백과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고작이었다. 지레짐작으로 경솔히 항의를 제기함으로써 그들을 자극할 수도 없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초법적인 권력기관인 그들과 승산 없는 정면대결을 성급히 벌일 수도 없다는 망설임 속에서 사태를 오판하고 어찌할 바를 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낸 것이었다.

그날 오후 5시경 감찰실장이 과장들을 모아놓고 저녁회의를 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 「형님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봐라. 그러면 5국에 선처하도록 잘 말해주겠다」 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형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내 나름대로는 강력히 항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직속상관인 이 과장에게 직원 신상사항으로서 정식 보고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형님을 즉각 석방하도록 요청하였다.

감찰실장은 옆에 있던 이 과장에게 내 말이 사실이라고 묻더니 사실이라고 답변하자 내 어깨를 두드리며 「처음 알자마자 직원신상문제로서 직속과장에게 보고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형이 죄가 있으면 그때 도망을 쳐도 이미 쫓겨 두 형제가 손잡고 제발로 걸어 들어왔겠는가」 라면서 「안심하라」 고 위로하는 것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감찰실 부실장 배명갑은 즉시 수사 담당과에 전화를 걸어 과장을 바꾸라고 했다. 과장이 없다면 고×× 담당계장이 전화를 받아 「나도 대공수사 수십년 해본 사람인데, 종선이 말을 들어보니 당신들 핀트가 틀린 것 같아. 편견을 갖고 무조건 덮어 씌우는 식의 조사를 해서는 안되니, 과학적인 조사를 하라」 면서 전화를 끊더니 「처음에 너의 직속과장에게 보고한 것은 훌륭하다」 고 나를 칭찬하며 돌아가라고 했다.

나는 다소 안심을 하고 사태를 낙관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형의 주민등록증을 찾아보니 아직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죄가 없으니 내일이면 나오시겠지.....」

그날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한 채, 감찰실장의 선처(선처가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 약



속을 믿고 또 하루를 어리석게 흘려보냈다.

### 갑자기 냉담해진 감찰실간부들

다음날 아침.

하늘이 무심치 않기를 빌면서 출근을 했다. 직속과장이 불렀다. 「행정과에 올라가 행정과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은 내가 직위해제 되었거나, 총무국 대기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는 점은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과장실을 나와 하던 일을 옆의 직원에게 상세히 인계해주고 행정과로 올라갔다. 그날 하루종일 나는 행정과에서 대기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대하여 아무런 지시도, 요구도 하는 것이 없었다. 비록 그들이 형을 국가반역자로 날조한다 해도 형님자신이 그런 행위를 인정할 리도 없고, 설사 고문으로 조작한다 해도 하늘이 있고 검찰이 있고 재판부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주시하는 국민의 눈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나는 이미 배짱을 정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어 주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저녁이 되자 내일 아침 정상적으로 출근하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만약 형에게 고문을 가해서 범죄를 조작하였다면, 그들은 대기상태에 있는 나를 즉각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며, 따라서 나는 내발로 걸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형님은 그때까지도 결백을 주장하며 그를 반역자로 조작하려는 그들과 피나는 사투를 계속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형으로부터 하등 의심할만한 사실이 밝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어제까지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던 감찰실 간부들이 하루사이에 돌변하여 나에게 냉담해졌을까? 이제 정말로 내가 불안해하던 일이, 형을 희생 양으로 하기 위한 조작극이 감찰실보다 더 높은 고위층에서 최종 확정됨으로써 감찰실로서도 부의 방침에 따라 물러설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그 전날 감찰실장의 긍정적 태도에 기대를 걸고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내 자신의 어리석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 형님이 돌아가셨구나

다음날인 10월19일 새벽 5시경 당직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당직관 태성범은 감찰과장이 「최선생을 오전 7시까지 당직실에 대기시켜 놓으라고 하니 7시까지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나는 「드디어 그들이 우리형을 반역자로 조작하고야 말았구나. 나를 불러 그들에게 인계코자 하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은 5시 40분, 나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6시 30분 나는 아내에게 「아기를 잘 낳아 키우라. 남자면 남자답게, 여자면 여자답게 키우라」고 당부하고 집을 떠났다. 집밖으로 나오니 골목 어귀에 낮은 정보부의 검은 코로나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탄 택시를 미행하는 것이었다.

25분쯤 지나 나는 당직실까지의 수십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고 차가워졌다. 그날의 당직근무자들이 나를 보고 당황하며 내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7시15분 부내 전화 벨이 울리고 감찰과장이 출근하는 차 속에서 무전으로 내가 당직실에 와 있는가를 확인했다.

10분 지나자 감찰과장이 올라와 나를 자기 사무실로 불렀다.

「피치 못하게 되어 5국에 인계하니 입장을 이해하라」는 정도로 나오겠지.....

그러나 감찰과장의 말은 그것이 아니었고, 그의 표정은 어둡고 침울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아- 형님께서 돌아가셨구나」하는 직감. 나는 눈을 똑바로 떠 그를 응시했으나 그는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 「은폐」, 그리고 「조작」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최교수께서 오늘 새벽 1시30분, 자신의 반역행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7층에서 투신자살하여 돌아가셨어. 그래서 5국에서는 5국장 자신이 위원단을 편성하여 가족들을 찾아 사죄키로 하는 등 부가 운동 뒤집혔어.」

순간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찔해졌다. 동시에 미칠 것 같은, 죽이고 싶은 감정이 치솟았다. 그러나 침착을 가장하며 가까스로 「돌아가신 현장을 봐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말했다.

「나는 유가족 중 한 명에게라도 현장을 보여주자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이 너무 비참하니 안 보여 주는 게 나으리라고 결론이 되어 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미 옮겨 안치하였다.」

나는 「죽이고 은폐하고 무엇이든 당신들 멋대로 마음대로 처리하는가」고 외치면서 「그래도 사건현장에 가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야기가 끝나면 보여주겠다」면서 강력히 제지했다.

「이야기라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내게 무슨 할 말이 또 있는가?」

「조사 중 자살한 사람의 변사체는 검사입회하에 시체해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의 입회 없이도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는 자네가 우리 부원이니 입회해줬으면 하는 것이네」

「조사를 하면서는 직원의 가족이라는 점을 전연 생각 않고, 이제 죽여까지 놓고서 네가 부원이니 죽음에 입회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죽어도 입회할 수 없소. 당신들이 죽었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처리하시오.」

「입회해줘야 되겠어!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저희들끼리 죽여놓고 저희들끼리 우물우물해버렸다고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나는 결코 입회할 수 없으며, 형님의 죽음을 이대로 덮어버릴 수도 없다.」

감찰과장은 피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것이었다.

「입회해야만 해! 그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아- 내가 왜 그것을 모를 것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살인행위를 은폐키 위하여 형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뒤집어 씌워 마스크에 대서특필하고 형의 조작된 범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형의 친지, 동료교수, 제자들에게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꾀박을 또다시 가하여 허위증거를 날조하고도 남을 자들임을 왜 내가 모르는가?

그렇다면 내가 형의 뒤를 따라 피를 뿌릴 것인가?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들을 한번 더 당혹시키고 광기를 부채질하는 이외에 현실적으로 그 죽음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아마 「국가반역자 최종길교수의 동생이 자신의 관련혐의가 드러나게 되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는 반역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신자살했다」고 한번 더 날조하면



그뿐 일 것이다. 그래서 남은 가족들에게 굴욕에 굴욕을, 한에 한을 더하게 할뿐일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생명을 던져야 할 것인가?

내가 죽는다면 과연 누가 역사 속에 반역자로 낙인찍혀 사라져간 우리 형제를 위해 먼 후일에라도 진실과 명예를 되찾아줄 것인가? 후일을 위해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죽어 가도 진상은 규명될 수 있을 것인가?

더럽도록 냉혹한 현실. 죽음 이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 이외에 아무 것도 없었다.

「좋다. 입회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측 변호인단과 의사들을 선임해서 같이 입회하겠다.」

그는 단호히 안된다고 했다. 최교수의 죽음이 여기저기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알려질 우려가 있으므로 결코 안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나는 그렇다면 입회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나는 형이 피살되어야만 했던 혐의내용이 무엇이며, 그 혐의내용을 증빙할 자료와 그간의 조사서류 일체를 직접 봐야겠다고 강경히 요구하였다. 그는 조사가 아직 진행상태에 있으므로 수사가 종결된 차후에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 협박의 칼까지 빼들어

내가 끝까지 불응하자 감찰과장은 5국 수사단장에게 같이 가서 의논해보자며 나를 수사단장실로 데려갔다. 수사단장 장송록은 내가 들어서자 황망히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다. 살인자의 손. 나는 눈을 똑바로 떠 그를 보며 그 더러운 손을 잡았다.

그는 구구하게 변명했다.

「처음 이틀동안은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분위기가 아는 한 7층 호텔 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기에 변소에 데려갔더니 감시원이 한눈을 파는 사이 변기를 밟고 창문턱에 올라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교수님! 가족도 있으신 분이 그러시면 되겠느냐」고 회유하고 다른 수사관이 뒤로 돌아가 다리를 잡는 순간 투신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자살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지하실에서 물 고문을 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었다. 비단 그 뿐이었겠는가?

내 눈을 똑바로 못 보는 저 비굴한 모습, 저런 비열한 살인자들의 손에 우리의 생명과 인권이 맡겨져 있는 이 현실...! 나는 그 곳에서도 입회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기를 계속하였다. 드디어 그들은 정보부 특유의 전가의 보도를, 협박의 칼을 빼드는 것이었다.

「만약 끝까지 우리에게 협조 않는다면 당신은 물론 다른 가족과 최교수의 친지, 동료교수, 제자들에게까지 관련 여부 조사를 확대하겠으며, 따라서 그들의 안전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다.」

나는 이미 죽음이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정하고 있었으므로 「부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의 수락 여부에 따라 입회할 수도 있다」고 요청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얘기하면 부장에게 즉시 보고할 것이니 조건을 말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 세 가지를 부장이 서명한 서면으로 써서 보장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당신들의 살인행위를 은폐하고 이로 인한 저항을 억누를 목적으로 형에게 반역자의 누명을 조작해 발표함으로써 형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 것. 형의 명예만 지켜주면 우리는 형이 정보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노라고 침묵할 테니 날조된 누명을 씌워 발표함으로써 형을 두 번 죽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침묵을 지킬 것.

둘째, 일체의 사상관계기록에 날조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 사상적 제한을 가하지 말 것. 그래서 고인이 남긴 두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켈른대학이나 하버드로 유학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설혹 검사가 되어 아버지의 죽음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유롭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체의 사상적인 제한을 가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셋째, 당신들의 살인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형님에게 날조하여 뒤집어 씌우기로 한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죄없는 형의 친지 동료교수 제자들에게 증거를 조작하지 말 것.

만약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나는 형님의 사체검시에 입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호소할 곳, 그 어디인가

그들은 내 요구사항을 의논하기 위함인지 옆방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홀로 남은 나는 그 틈을 타서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감시원이 있는가를 확인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빠른 걸음으로 2층에 있는 그 방을 빠져나와 재빨리 형님께서 투신하셨다는 그 화장실 밑의 장소로 갔다. 그곳까지는 직선거리로는 20m, 계단을 내려가 건물을 우회해서는 고작 40m 정도로서 불과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나는 그곳에서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형님께서 투신하셨다면 유혈이 낭자했을 것이고, 그 현장을 몰로 닦아냈다면 초가을 새벽 낮은 기온에 그곳이 응달이었기 때문에 아직 물기가 아스팔트 위를 적시고 있거나 경사가 낮은 곳에는 물이 고여 있어야 할 것임에도 그 어느 곳도 물에 의해 씻겨진 흔적이거나 물기라곤 한 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절대로 형님은 투신 한 것도, 자살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 자리에서 확신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형님의 죽음을 이렇게 헛되이 덮어버릴 수는 없다는 복받치는 감정으로 그 즉시 정문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러나 입구에서부터 미리 나와 감시근무중이던 정보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고 붙잡으려는 그들을 뿌리치고 다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국회로? 국회의원 치고 용기 있는 자가 남아 있었는가? 서울대로? 그들의 죽음과 희생을 더하는 이외에 그들로부터 얻을 게 무엇인가? 학생들은 내가 보호해야 할 어린 세대이지 그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지 않은가.

국내·신문 방송으로? 그러나 국내 매스컴이 어떻게 통제 받고 있는가를 알고있는 나로서는 그곳도 아무런 힘이 되어 줄 수 없으리라는 절망 이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해외언론으로? 까맣게 먹칠되어 국내에 배포되는 외국 간행물들. 미국대사관? 서독대사관? 과연 그들이 국제관례를 깨고 남의 나라 한 개인의 문제에 내정간섭을 하면서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달려가 호소할 곳이라곤 이 넓은 천지에 단 한곳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셋째 형 사무실로 가 둘째형의 죽음을 이야기했다. 형은 돌아가신 형의 뒤를 따라 깨끗이 생명을 던져 싸우자는 것이었다. 형의 성격, 불같은 우리 형제의 성격을 잘 아는 나는 형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형의 눈동자는 증오와 분노로 타오르고 내 말은 한마디도 듣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이미 죽음은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는 비굴한 뜻을 정한 나에게 죽음만을 생각하는 형은 아무 도움도 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형의 회사 직원들에게 형을 잘 보살피고 보호하도록 이르고 모든 문제를 내가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부로 돌아왔다. 후일 비굴한 자였노라는 비난을 다른 가족 또는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더라도 그 비난을 나 혼자 받아야 하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 검시 입회만 서둘러

「어디를 다녀왔는가? 모두 너를 찾느라고 야단이 났었다.」

「형님의 모습을 한번 보지 않고는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갔었으나 뵈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당신이 말한 3가지 요구사항은 당신들이 침묵을 지키는 한, 부장께서 보장키로 약속을 하셨다. 그러나 서면 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정보부원이든 부장이든 일반직원이든 서면 상으로 무엇을 보장하거나 보증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부장은 형님의 죽음에 대하여 막대한 돈으로 충분히 보상할 것과 네 신분을 검찰실 직원으로 환원시켜 근무토록 할 것을 또한 보장했다. 믿고 검시에 입회해달라」

「우리는 당신들의 더러운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고인의 자녀와 아내를 굶기지 않을 것이니 그런 더러운 이야기는 그만두자. 또 내형을 죽인 정보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내 신분에 대한 보장도 필요 없다.」

「어쨌든 검시가 급하니 어서 입회나 해달라.」

나는 형수에게 이 사실을 연락해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굴욕은 우리 가족 중 나만으로 끝내야겠다는 생각에서 혼자 입회할 것을 결심하고 그들에게 다음 사항을 더 요구하였다.

「형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와 수사서류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들은 괴로운지 잠시동안 할 바를 모르다가, 검찰실 부실장 배명갑이 「조사서류와 증거물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가 종료된 후 보여주겠다」면서 다시 거절하는 것이었다.

「죽은 사람을 계속 조사한다 말인가?」고 내가 조소하자 그는 「네 형이 동베를린에 다녀왔다는 죄상이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투신자살을 한 것은 사실이다.

간첩은 대개 자기 아내까지도 모르게 간첩행위를 하는 것이니 당신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형님께서 반역자의 죄상이 드러나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신자살하였다고 하나, 나는 형이 끝까지 결백과 명예를 지키고자 싸우다가 당신들의 고문으로 죽어간 피가 살아 있는 학자로 생각한다. 당신들은 형이 반역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형이 애국자였고 명예를 죽음으로 지키고자 한 선비의 넋을 지닌 자랑스러운 학자로 기억하겠다. 역사가 심판하리라」

그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그들에게 「형님을 죽인 살인 수사관과 형님

의 죽음에 관련 있는 책임자 전원을 법에 따라 살인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서류 한 장을 쳐들면서 「형을 조사하는 데 참여한 모든 조사관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뽑아왔다. 책임 있는 자는 엄중한 조사를 거쳐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확약했다.

### 거부당한 변호인·의사 검시입회

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입회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들이 초조한 나머지 어떤 광기로 일을 그르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고개를 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나 혼자 입회한다고 하자 내 신분이 정보부원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여지가 있으니 일반인인 형을 같이 입회토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형에게 전화를 걸어 시내 소공동 수향다방에서 만났다. 나는 형에게 그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죽음이 최선의 방법일 수 없다고 누누이 간청하였다. 형은 마침내 입술을 깨물며 수긍하시는 것이었다.

잠시 후 우리는 「수향다방」 건너편 「사라망카」라는 경양식집 밀실에서 5국 9과장 서철신과 검찰과장을 만났다.

형은 말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가? 우리 형님의 생명하나로는 부족하단 말인가?」

검찰과장은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걸 보았다. 형님의 죽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으나 형님의 죽음을 과거로 돌리고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했다.

「형님께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하여는 후일 밝혀질 날이 있을 것이며 자손 대대로 계승하여 밝히도록 할 생각이니 당신들의 원하는 바나 말해보라」

「우선 사체검시에 입회해줘야 우리 면목이 서겠다」

「우리 뜻대로 입회를 안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입장인가? 당신들은 우리측 변호인과 의사의 입회도 거부하고 있잖은가?」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는 입장이니 꼭 입회 해달라」

「당신들은 왜 우리의 입회가 꼭필요한가?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각본대로 준비되고 각본대로 진행될 검시결과를 믿지도 않을 것이며, 검사가 입회하고 의사가 집도를 하는 법적 절차만이 갖추어졌다 해서, 형의 죽음을 자살이라고 믿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지금 서울대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온한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자기들의 교수가 정보부에서 죽었다면 큰 물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가족들이 꼭 입회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들의 날조에 의한 고인의 명예손상을 막기 위해서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형의 죽음이 학생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물의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성격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성실히 당신들과의 약속, 침묵을 지키는 한 당신들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자 검찰과장은 「4·19 당시 김주열을 수장한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한 비밀로 유지될 줄 알았으나, 보름 후 시체가 떠올라 4·19의 봉화가 오른 게 아닌가?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는가? 당신들 가족이 침묵의 약속을 지키더라도 비밀이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한 우리도 당신들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보장했



다.

### 투신자살이 확실하다니.....

우리는 오후 1시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갔다.

입회검사 이창우는 자신들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도 떳떳치 못한 일에 재수 없이 끼여들게 되었다는 낭패감에서인지 「새벽부터 나와 잠도 못 잤다」고 한탄을 하면서, 「손과 발이 부러져 있고 후두부가 깨져 있는 것을 보아 투신자살일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것은 검사를 해봐야 알겠다」면서, 「고문을 한 흔적은 아무 것도 없다」고 굳이 묻지도 않은 것까지 힘주어 언급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측 의사와 변호인의 입회를 주장하였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검사는 입장이 곤란한지 자리를 피하고 감찰과장과 언쟁을 되풀이 하였으나 도저히 받아들여 질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다시 들어온 검사에게 말했다.

「검사님! 나는 현직 정보부 감찰실 직원입니다. 정보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검사님보다 몇십 배 더 잘 알고 있는 정보부원입니다. 검사님, 하시기 괴로운 말에 써 더 이상하지 마시고 각본대로, 예행연습하신대로 진행하십시오. 저희는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결코 입회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고인에 대한 마지막 이별인데....., 예의 상으로라도.....」

「당신들의 목적은 진상의 규명이 아니라 진상의 은폐·조작 아닙니까?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합법을 가장기 위한 적법한 절차지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입회를 하든 않든 어차피 당신들은 당신들 뜻대로 서류를 만들 것 아닙니까?」

그들도 이제 와서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대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잠시 후 검사를 마쳤다면 검사와 법의학과장 김상현이 나와 「투신자살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도 양심은 있으리라. 그러나 동료의 형을 살해하는 정보부, 동료의 형이 죽어도 사인규명조차 뜻대로 못하게 하는 정보부가 그들이라고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이 암흑의 시절, 감히 누가, 더구나 공직자로서,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핏발이 서 있는 정보부의 살기 찬 광기를 누가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 이 무서운 현실을 사는 불쌍한 형제인 것이다. 저들도 언젠가 세월이 흘러 증언대에 서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그들은 검시결과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다. 한동안 승강이를 하다가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또 굴복하고 말았다. 검시 도중 우리가 대기하던 연구소장실에서 감찰과장이 고위층에 전화를 걸어 유가족의 3가지 요구 사항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화를 끊은 감찰과장은 고위층에서 이를 쾌히 승낙하고 즉시 5국장 안경상을 보내서 유족들에게 직접 요구사항을 보장한다는 약속의 말을 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는 것이었다.

잠시후 5국장 안경상이 들어왔다. 그는 「뺨을 맞아도 할 말 없다」면서 내손을 붙잡고 「고위층에서 직접 유가족을 찾아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을 전하라기에 왔다. 사죄단을 편성, 나머지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는 막대하게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죽어도 시원찮은데 뺨이나 한쪽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제 것인냥 우리에게 막대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 조작된 탄원서와 비굴한 항복

그들의 검시가 끝난 후 나는 형과 더불어 감찰과장을 따라 남산청사에 들어가 손종호감찰 실장을 만났다. 실장은 우리를 위로한 후 고위층에게 가서 유가족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자기가 직접 확인 받아 오겠다고면서 자리를 떴다.

다녀온 그는 당신들이 요구한 세 가지를 철저히 보장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막대한 보상과 내 신분의 보장을 약속 받았으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가족이 앞으로 일체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한 부 작성하여 부장 앞으로 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잠시 후 5국 수사단장 장송록이 이른바 각서의 초안을 들고 우리가 있는 방문을 열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들어오지는 못하고 허둥지둥 뒤돌아 나가 감찰과장을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었다. 장송록이 가져온 각서는 각서가 아니라 탄원서였다 그 탄원서의 초안은 기가 막힌 것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러했다.

「존경하는 중앙정보부장님! 우리는 나라를 배신한 천인공노할 간첩 최종길의 가족으로서 그가 간첩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조국을 배반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은 최종길이 한없이 미웁고 원망스러우나 살아 있는 가족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부디 살아남은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서 부장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며 최종길의 죄상을 신문 등에 보도하지 않고 호적에 기재하는 등 사상적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자손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형과 나는 감찰과장을 넋을 잃고 쳐다봤다. 그는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조작된 탄원서에 나와 형, 그리고 형수로부터 서명을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완강히 버티면서 당신들 할대로 해보라고 악을 쓰자, 그들은 「그렇다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우리는 형님의 명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냉정을 잃고 결국은 지켜지지도 않을 그들의 약속에 급급하여 계속 바보스럽게 기만당했던 것이다.

그들은 나머지 가족을 두 형제가 설득할 것 과 장례는 직계가족만의 가족장으로 하고 가족 이외 동료교수와 제자 등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므로써 그들도 약속을 지켜 주리라는 생각에서, 그들도 사람이니 사람을 죽여 까지 놓았으니 설마 그 정도 약속이야 지키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그리고 싸우려 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거대한 적에게 지친 나머지 그러마고 대답했다. 우리 형제는 장지를 모란공원으로 정하고 가족들에게 비굴하게도 항복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 가족들에게 항복 설득

10월 19일 저녁.

우선 큰형수를 설득했다. 우리 형제들을 길러준 어머니나 다름없는 큰형수를 설득해야만 다른 가족의 설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어머니께서는 시골에 가 계셨고, 큰 형님은 둘째형이 며칠째 못 돌아오시는 것에 쇼크를 받고 이미 병원에서 정양 중이었다. 형님께서 법학박사로 금의환향하고 모교인 서울법대의 교수로서 성장한 것에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여인. 큰형수는 다 죽더라도 그놈들과 싸우자는 것이었다. 나는 형님의 명예를 이야기했다.

형수는 「이미 죽은 사람, 명예만이라도 지켜질 수 있다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다」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둘째 형수를 만났다. 형수는 「최씨 집안에 시집왔으니 작은아버지들의 뜻대로 따르겠다」면서 눈물 한 방울 안보이시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둘째 형수에게 탄원서의 내용을 보여드리지 않고 말미에 서명만 받았다. 지켜지지도 않을 명에 때문에 우리는 형수에게까지 차마 못할 짓을 한 것이다.

10월 21일 아침-. 우리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형님의 유해를 영구차에 옮겨 모시고 장지로 떠났다. 형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동안 정보부 직원 10여명이 연구소 입구 및 내외곽을 경계하고, 우리가 몰래 유해를 옮겨 확인하지 못하도록 일체 접근조차 못하게 하면서 감시하더니 그날 아침에는 절대로 서울대 앞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연구소 앞을 나오니 이미 철궁 모서리와 세검정 쪽으로 정보부의 직원들이 나와서 감시하고 있었고, 정낙중 5국 수사계장이 타고 있는 검은 코로나가 뒤에서, 또 다른 검은 코로나가 앞서가며 미행했다. 혜화동 로터리를 지나면서 보니 서울대쪽으로 기동경찰 1개 소대 정도가 경찰트럭에서 내려 대기중에 있는 것이 보였다.

장지에 도착하니 동기생으로서 같이 감찰실에 배치된 박춘영군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으리라. 그러나 이곳에서 돌아가면 그들의 상관은 그에게 장례식 상황을 물으리라. 그러면 그도 그때는 자신이 감시자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그의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감찰실 직원 일동이라고 쓴 봉투에 10만원의 조위금을 가져왔다. 간첩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정보부원들이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나는 그 속에 말 못하는 양심의 아픔이 깃들어 있음을 알기에 거절하지 않았다. 그것이 형님의 죽음과 관련해 정보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당부했다.

「춘영아 보거라! 나는 정보부를 떠나지만 너희들은 남아야 한다. 오늘의 이 아픔을, 이 현실을 잘 보거라. 후일 너희들 내 동기생들이 정보부를 이끌어 가는 날 바로 이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인간의 생명과 천부의 권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정보부원이 되거라」

### 쓸쓸했던 장례식

장지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가족은 한 명도 없었다. 희정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뛰어 놀았다. 그래도 우리는 울지 않았다. 묘지의 인부들로부터 무슨 가족들이 곡도 않느냐고 핀잔을 받으면서도 입술만을 피가 맺히게 깨물 뿐....

둘째 형수가 나에게 「아빠가 쓰던 책 원고가 다 끝나 가는데... 조교분에게라도 완성시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우리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광준이가 「엄마, 그 책 쓰지 말라고 해. 내가 다음에 커서 꼭 쓸 테야!」 하고 말했다.

나는 한 팔에 희정을, 또 한 팔에 광준을 들어 안았다. 가슴속으로 쏟아지는 눈물이....

「광준아 희정아, 내 너희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하리라. 맹세코 너희 남매가 최교수의 자녀라고 만인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그날이 꼭 오게 하고야 말리라」

저 아래 묘소의 다른 장례식에는 많은 조객이 몰려와 있었다. 형님의 결혼식에는 인천의 자랑이라면서 1천여 명의 하객이 인천중학교 강당이 비좁아 운동장에까지 나와 서 있더니,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쓸히 형님을 떠나 보내야만 하는가?

「저쪽은 조객이 많군」

동기생 춘영이 나의 마음을 읽고 위로의 눈길을 보낸다.

###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

10월 24일 오전 10시경.

감찰과장으로부터 우리를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그날 10시 30분경 사라망카에서 그를 만났다.

「이번 사건에 가족께서 우리와의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고 침묵을 지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체 매스컴에 보도하지 않고 약속을 지켜드리려 했으나 여건이 달라졌다. 이미 일본 신문에 형님 사망기사가 보도되었으므로 그 신문을 김포공항에 묶어놓고 배포를 연기해 놓았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일체의 사상적 제한을 가하지 않고 더 이상 동료교수, 제자, 가족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으니 양해하라. 일 가정도 아닌 국가에서 살인의 비난을 받고 침묵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운명으로 알고 참아달라」

교활한 놈들!

필연코 그들은 형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야기될 여론의 싹을 꺾어버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자를 간첩에게 동조함으로써 적을 이롭게 한 빨갱이라고 탄압키 위하여 형을 어마어마한 반역자로 조작하여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리라. 이 나라에서 우리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 이른바 안보를 위해서는 살인, 납치와 같은 인권유린도 당연한 것이니 침묵해야 한단 말인가. 살기 위해 태어난 인간으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가면서도 침묵하라고 한다면 인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마침내 형을 이른바 「유럽 거점 대규모간첩단」의 일원으로 발표하고, 형이 간첩임을 자백하고 여죄를 추궁 받던 중 변소창문에서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형의 명예를 지켜주기위한 그들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이다.

### 학원탄압에 있었던 조사목적

나는 그들이 형을 조사하게 된 진정한 동기와 목적은 학원탄압에 있었음을 확신한다. 이재원이라는 인물과의 동창관계는 수사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구실에 불과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석찬 수사관은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완전히 종결되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공식발표를 하기 위한 발표문을 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형님은 실질적인 수사대상이 아니었다.

더구나 형님과 관련시킨 사건의 수사는 수사과에서 했고, 형님은 공작과에서 따로 조사를 했다. 형님만 따로 조사한 것은 단순한 수사관으로서 하기 어려운 공작전문가들에 의해 처리해야 할 다른 동기와 목적이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공작-, 무슨 공작을 목적으로 하였는가? 나는 단연코 학원탄압을 목적으로 학원내 간첩단을 조작키 위한 공작적 목적에서 형님문제만 공작과에서 손을 댄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발표내용에 대한 의혹을 기록해 둔다.

첫째, 해외의 인접국가에 유학해온 동창생을 한두번 만났고 그 동창이 후에 빨갱이가 되



었다 해서 반역자로 조작되어 살해되어야만 하는가? 왜 해외에서 그를 만난 동창생들 중에서 유독 정부의 교수 학생에 대한 폭행과 고문에 항의한 최종길교수만이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피살당해야 하는가?

둘째, 미국에서 만난 북괴 공작원의 이름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서 어떤 연락 방법으로 누구의 지령으로 무슨 목적으로 만났으며 만난 결과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범죄내용을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가?

셋째 72년 귀로에 서독 쾰른에서 이재원과 접선을 했다면 이재원은 그 당시 서독에 있었는가? 발표 내용대로라면 이재원이 서독에 있다는 것을 정보부에서 조사결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되는데, 왜 검찰실 부실장 배명갑은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에게 이재원이 어디 있는지 아는가」고 물어 왔는가?

넷째 평양에서 간첩교육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포섭되어 언제 어디서 무슨 교통편으로, 무슨 여권, 어떤 경로, 누구의 안내로 평양에 갔으며, 평양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머물렀고, 무슨 교육, 무슨 지령을 받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귀국했는가?

다섯째 가정이 빈곤한 사람을 골라 해외로 유학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형의 주선으로 해외에 유학한 학생이 있다면 그 명단을 제시하라. 형의 주선으로 독일 쾰른대학에 초청을 받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현 서울법대학장(73년 당시) 김중환교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가 간첩이란 말인가? 또 가정이 빈곤한 사람을 해외에 유학시키면 영락없이 공산주의자가 되는가? 어디로 어떻게 유학시켜 누구를 만나게 한다던가 하는 정도의 공작계획이 있었을 게 아닌가?

여섯째 학교에 조직을 구축했다는데 무슨 조직인지 말해보라.

일곱째 증거물로서 이재원과 약정한 암호서신 두통이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이재원과 약정한 암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 어떤 암호체계로 되어 있고, 암호문기는 무엇이며, 암호를 해독한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암호조직, 암호체계인지는 모르나, 그 당시 그로부터 서신을 받은 그의 가족, 친지들의 서신도 당연히 그 암호조직, 암호체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닌가? 그 검토결과는 어떠한가? 그들이 받은 편지와 형님이 받은 편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 서신이 유력한 증거물인 암호연락문이었다면 정보부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동생인 나로부터 이미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왜 없애 버리거나 감추기라도 할 것이 지 그대로 남겨 두었는가? 왜 미리 알면서도 도주하지 않고 동생인 내 손을 잡고 죽을 곳으로 제발로 걸어들어 갔을까?

여덟째, 또 다른 증거라는 노모의 주소가 적힌 수첩을 왜 인멸해버리지 않았는가? 노모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이 실제로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실제로 그런 수첩이 있고 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해도 노모 역시 당시 유학생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면, 수백 명의 당시 유학생의 주소가 적혀 있을 그 수첩에 그 케케묵은 유학당시 주소가 같이 적혀 있다고 간첩의 증거가 된단 말인가?

그것이 그들과 비밀연락을 하기 위해 적어놓은 것이라면 29세에 법학박사가 된 수재가, 평양에 가서 밀봉교육까지 받았으면서, 정보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없애버리거나 주소와 암호조직 및 체계를 옮겨 감추지도 못하고 놔두었겠는가. 형은 그토록 어설픈 간첩이었다단 말인가?

아홉째 공작금 1천불을 받았는데, 형은 독일에서는 훔볼트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집에서 매달 송금해주는 돈으로 풍족하게 공부했으며, 미국은 하버드 엔칭의 초청으로 간 것이다. 훔볼트재단과, 하버드 엔칭이 북괴단체이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세계적인 석학들

이 공산주의자들이란 말인가?

열째 형이 가져다 준 공작금을 받아서 목적하는 공작에 썼다는 증인이 나타나자 투신자살했다는데, 그 자는 누구이며, 공작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왜 그자는 처벌은커녕 공개조차 않는가?

열한째 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했다는데, 그 국내조직이란 형님이 서울법대 9회 졸업생회(구법회)회장이셨으니 그 조직을 말함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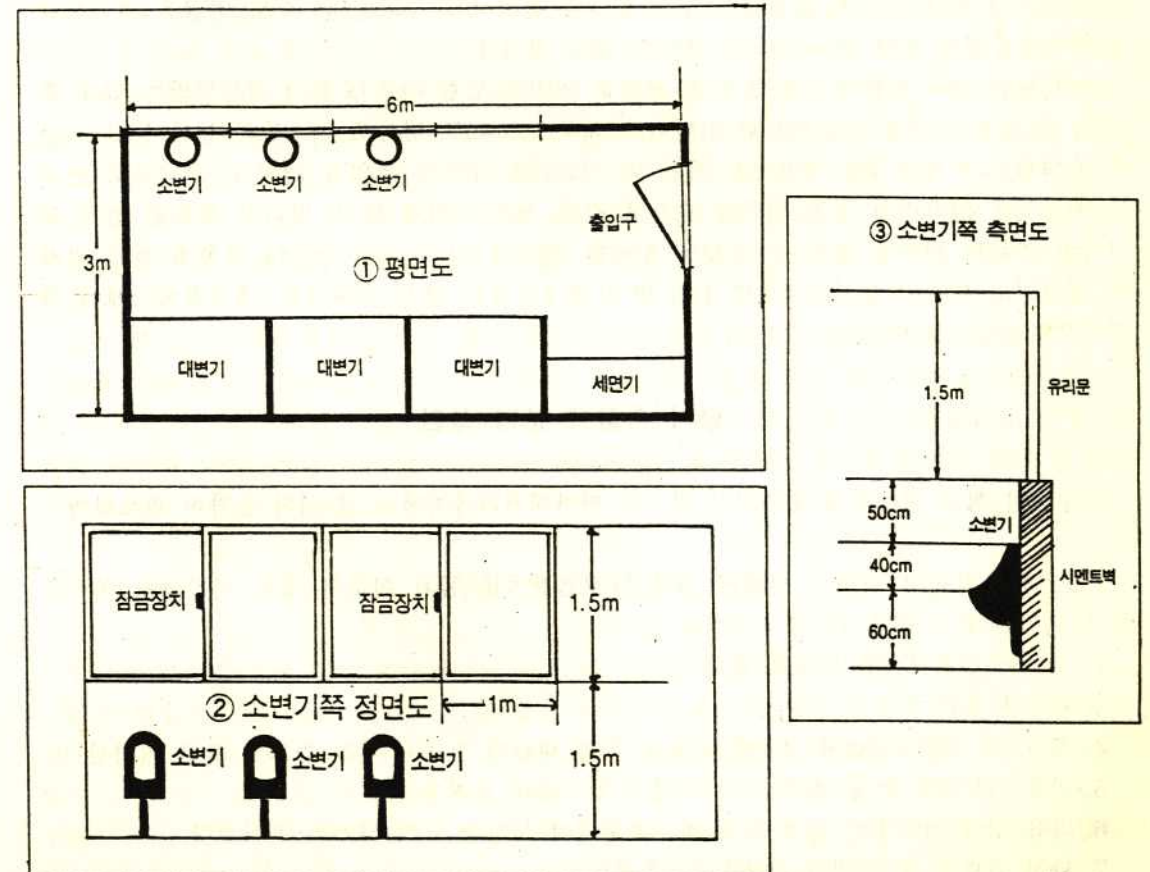
열두째 북괴찬양 운운하였는데, 형이 북괴를 찬양하는 말을 들은 증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증인이 누구이고 증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 나의 의문점과 견해들

마지막으로 그들은 형이 용변을 빙자하여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보부에서 그렇게 수사대상자를 소홀히 감시하며 자기 의사로 창문턱에 올라서 뛰어내릴 만큼 자유로운 상태에 두고 조사하는가? 왜 투신자살 현장을 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변호인과 의료진을 선정, 검시에 입회할 것을 주장하자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는가?

나는 현직 정보부원으로서 그 화장실의 구조와 위치를 잘 알고 있으며, 나도 수시 사용한 경험이 있으므로 결코 투신자살일 수 없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는 살인이나 아니냐를 판단할 중요자료가 될 것이므로 상세히 나의 의문점과 견해를 밝혀둔다.

우선 화장실의 구조를 도시하면 그림과 같다.





정보부는 보안상 외부인의 내부감시 및 불순분자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모든 출입구와 창문은 물론 책상을 잠시 이석해도 시건(서랍을 잠근 후)후 이석토록 되어있을 만큼 강력한 규정으로 시건을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형님의 투신시간인 10월 19일 새벽 1시30분에는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후이므로 화장실 창문은 안으로 완벽하게 시건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날씨가 쌀쌀해서라도 닫혀 있었을 것이다. 또 밖은 캄캄한 밤인데 화장실 안은 형광등이 켜져 있어 실내가 들여다보일 것을 감안해서라도 그날의 당직근무자는 규정상 모든 창문과 출입구를 봉쇄토록 점검을 하였을 것이므로 완벽히 시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유리창문은 1개가 가로 1m, 세로 1m50cm정도의 두꺼운 유리 한 장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샷슈 창문으로 중량은 적어도 40kg 이상 나갈 것이므로 한 손으로 열려면 꽤 힘이 들고, 두손으로 힘들여 열어야 열릴 정도의 무거운 유리창이다. 검사는 나에게 현장검증 결과 변기에 발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그것으로 보아 형이 변기를 밟고 창문턱에 올라섰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였다. 발자국이 있는지 없는 지야 내가 보지도 못했고, 설사 발자국이 있었다고 해서 투신자살일 수 있단 말인가? 구두만을 들고 와 구둣발자국을 내놨는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어쨌든 1m50cm정도 높이의 창문턱에 올라서려면 변기 앞쪽을 한번 밟고 다음 변기 꼭대기를 딛은 다음에야 창문턱에 올라설 수 있다. 형이 곡예사가 아닌 만큼 벽과 평행으로 붙어 있는 변기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고 다음 행동에 옮겨 창문턱까지 올라서기 위해서는 손이 닿는 범위 내의 무엇인가를 잡아 의지하였을 것이며, 창문 턱의 폭이 총20cm(안쪽 10cm,밖쪽 10cm) 정도에 불과한 만큼 창문턱에 올라서서 창문을 열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완전히 올라서기 전에 먼저 창문을 열어야 했을 것이다.

손이 닿은 거리 이내에서 손을 대서 붙잡고 의지할 만한 것은 오로지 창문턱만이 있을 뿐이다. 창문 턱 안쪽은 매끈매끈한 타일이 아래쪽으로 45도 경사로 비스듬히 붙여져 있는 만큼 손바닥으로 매달리면 백번이면 백번 다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손으로 창문틀을 잡으려면 창틀 밖쪽을 손으로 잡아 잡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창문을 먼저 열어야만 창문턱 밖쪽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창문을 열고 손을 창문턱 밖쪽에 걸쳐 의지해 매달리고야 변기 앞부리로올라서고, 변기 앞부리에서 변기 꼭대기로, 변기꼭대기에서 창문턱으로 올라 설 수 있는 것이다.

### 형의 죽음은 분명 살인

그렇다면 형이 창문턱에 올라서서 밖으로 뛰어내리기까지에는 몇 개의 동작이 필요할까?

1. 소변을 보면서 소변기 앞에서 창문의 시건장치를 풀기 위하여 창문 시건장치 쪽으로 몸을 옮긴다(한두 걸음이든지 4, 5걸음 정도).
2. 창문의 시건장치를 손으로 푼다.
3. 창문을 연다.
4. 창문에서 손을 떼면서 창문턱 밖으로 손을 내밀어 창문턱 밖을 손으로 잡아 의지한다.
5. 왼발이나 오른발 중 한발을 먼저 변기 앞부리에 올려놓는다.
6. 다음 땅에 남아있던 발을 들어 변기앞부리에 두발을 모아 완전히 올라선다.
7. 다시 한발을 들어 변기 꼭대기 에 올려놓고

8. 나머지 한발을 들어 변기 꼭대기에 올려 두발을 모은다.
9. 다시 한발을 들어 창문턱에 올려놓고
10. 다음 나머지 한발을 들어 창문턱에 모은다.
11. 창턱을 잡은 손을 떼면서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나면 위 창턱 내지 창문을 잡고 의지해 완전히 일어서다가
12. 창밖을 향해 뛰어 내린다.

12개의 동작-. 한 동작에서도 실수를 안했다 쳐도 한 동작에 최소한 1초 정도가 소요된다 고 가정할 때 12초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12개의 동작.... 최소한 12초의 시간. 도대체 수사단장이 나에게 말한 대로 「용변을 보시다가 별안간 창틀에 올라서시기에 한 수사관이 회유하고 한 수사관이 뒤로 살금살금 돌아가 형의 다리를 잡는 순간 그대로 뛰어 내렸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형이 평소 그 변소를 많이 드나 들어봐서 사전계획을 세워 연습을 해온 것도 아닐 것이며, 곡예사도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귀신처럼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화장실의 크기는 길이 6m, 폭 3m 정도의 크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 감시수사관은 형으로부터 멀어봐야 6m 이내에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형이 맨 안쪽의 벽에 붙어 있었고 담당 수사관들이 반대쪽 문 입구 벽에 붙어서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다. 형이 문 쪽에서 몇 번째 변기를 택했는지 모르나 가장 안쪽의 변기를 택했다 해도 그들과의 거리는 멀어야 3 4m 에 불과했을 것이다.

수사관이 화장실까지 따라오지 않을 경우는 천만 분의 1의 확률도 없었다. 수사규정상, 수사상식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감시대상 인물이 적어도 12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12가지 이상의 수상한 동작을 하는데 불과 3-4m 거리에 있던 수사관 2명이 체지할 수 없었던 말인가? 대개의 평범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경우 100m를 20초 전후에서 주파한다. 그렇다면 수사관들이 3-4m 거리에 있는 형을 체지하는 데는 불과 1초도 안 걸렸을 것이다. 열 두 번을 넘어졌다 일어나도 붙잡을 수 있었을 것이고 엉금엉금 기어갔다 해도 체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억만 분의 1의 가능성도 없지만, 형이 투신자살한 것이 사실이라 가정하더라도 이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억만 분의 일의 가능성도 없지만 검시결과 투신이 사실이라 해도 사인은 추락사 일 수 없다. 사인은 고문에 의한 타살이며, 이미 생명이 끊어진 상태이거나 숨은 붙어 있으나 회생가능이 없자 투신자살을 가장키 위해 화장실 창밖으로 내던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너무도 인간적이었던 형님

형님은 다음과 같은 형님 특유의 성격과 정황으로 볼 때도 결코 간첩일 수 없다.

형과 형수가 선을 보고 때때로 만날 당시 인천집의 등나무 정자 밑에서 가족들과 담소하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등나무에서 손가락 굵기 만한 송충이 비슷한 초록색 벌레가 형과 형수의 한 가운데로 떨어졌다. 형님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형수는 그 벌레를 대수롭지 않게 발로 밟아 죽여버렸다. 형수는 당시 레지던트 중이었기에 매일 수술을 몇 개씩 하는 처지였으므로 다른 여자와는 좀 다른 면이 있었던 것이다.